



世宗特別
自治市議會
Sejong City Council

「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의원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서

2015. 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의원연구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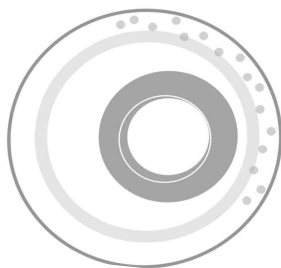
(대표의원 서금택)

|| 목 차 ||

I. 「활동결과보고서」를 발간하면서	3
II.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의원연구모임」 개요 ...	9
III.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의원연구모임」 활동상황	15
IV. 관련부서별 추진상황	47
V. 관계 전문가 제언	59
VI. 타시도·공장운영 모범사례	77
VII.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의원연구모임」 정책제언	83
VIII.부 록	89
① 보도자료	91
② 강원연탄공장 일반현황	123
③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의원연구모임」 회원현황	126



I . 「활동결과보고서」를 발간하면서



I

「활동결과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서 금 택 의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강원연탄공장 의원연구모임」 대표의원



존경하는 21만 세종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조치원을 제1선거구 서금택의원입니다.

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의원연구모임」 대표의원으로써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2012년 출범 이후 불과 3년 만에 인구가 두 배 이상 증가하고 각종 교통·교육 및 생활 편의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상전벽해의 도시이자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의 관문인 조치원역 바로 인근에 1988년부터 하루 4만장의 연탄생산 설비를 갖춘 강원연탄공장이 도심 중앙에 위치해 조치원 발전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체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 건물·도로변의 환경오염으로 세종시를 찾는 방문객의 첫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한편 주민의 생활 불편으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강원연탄공장의 조속한 해결이야말로 신도심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조치원의 새로운 발전계획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영유하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 왔습니다.

마침내, 지난 2월 저를 포함한 박영송·이태환의원님을 비롯하여 인근지역 주민과 관련부서 담당과장 등 8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강원연탄공장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모임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먼저, 정해진 설비를 갖추고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전지역 연탄공장 2개소와 충북 음성군의 친환경 연탄공장을 방문하여 저탄장 주변 방진막 설치와 덮개처리 등 우수시설을 강원연탄공장이 도입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에는 저탄장 임대면적을 준수해 운영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협조·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의 수차례 회의와 관계 전문가 초청토론회를 통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와 연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강원 연탄공장 주변지역 정비방안을 포함하는 정책제언을 담은 활동결과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정책제언들은 향후, 시의회, 세종시와 지역 주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갈 때 그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조치원에서 동고동락한 강원연탄공장의 변화가 나날까 생각합니다. 기업의 생존도 결국 시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또다른 사명인 사회적 책임에도 귀를 기울이고 주민과 고통을 함께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시의회와 함께 강원연탄공장 문제해결을 위해 지금보다 더 발로 뛰고 주민과 함께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본 연구모임에 끝까지 함께 해주신 박영송·이태환 의원님, 성치 않은 건강과 다른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장교진·유진성회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영 송 의원

세종시의회 교육위원장

「강원연탄공장 의원연구모임」 회원



안녕하십니까 ?

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의원연구모임」

회원 박영송 의원입니다.

우리 조치원 원리·정리·남리 인근 상가와 주민들은 강원연탄공장이 들어서면서 수십 년 동안 배출되는 비산먼지로 많은 생활불편은 물론 건강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에도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해 오다가 금년 초 서금택 의원님을 중심으로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활발히 활동해 왔지만 미완의 연구로 마무리하게 된 것이 다소 아쉽기만 합니다.

그동안 연구모임은 당초 등록신고된 저탄장의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여 운영토록 촉구했고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환경대책 마련과 함께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와 연계한 도심재생사업 추진을 제언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강원연탄공장 문제해결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세종시는 강원연탄공장에 대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행정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지역주민 여러분께서도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끝으로, 작지만 큰 성과를 만드신 서금택 대표의원님, 이태환의원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담아 인사를 올립니다.

이 태 환 의원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세종시의회 대중교통특별위원장
「강원연탄공장 의원연구모임」 회원



안녕하십니까 ?

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의원연구모임」
회원 이태환 의원입니다.

「강원연탄공장」 문제는 수십여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조치원읍의 지역현안으로써 조치원읍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본 연구모임은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과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조치원읍 주민과 인근 피해 주민들의 염원대로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정책제언의 결과를 내어 놓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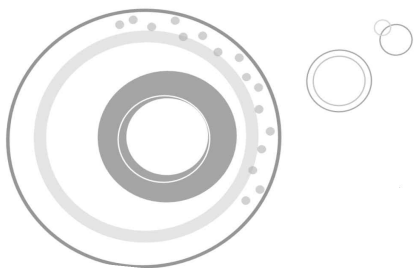
하지만, 강원연탄공장 문제에 대해 짧은 기간 동안 서금택 대표 의원님과 박영송의원님을 비롯한 시민 회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어 내어 지역사회 의 화두로 던져 놓았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모쪼록, 본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서에서 제언한 내용들이 조치원의 역사와 특색을 살린 발전계획과 지역주민들의 궁극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금석으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회가 희망의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서금택 대표의원님과 회원 여러분께 마음 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Ⅱ.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의원연구모임」 개요



Ⅱ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의원연구모임」 개요

□ 연구모임 배경

○ 강원연탄공장 관련 다수 민원 지속 발생

- 강원연탄공장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각종 민원해소를 위해 공장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 문제에 대한 환경개선 필요

○ 조치원읍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원도심 재생의 필요성 대두

- 세종시는 2012년부터 정부청사 1단계 이전을 시작으로 지난해 3단계* 이전계획이 마무리 되면서, 금년부터는 본격적인 정부 세종청사 시대를 열어가고 있음

* 37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19) 소속기관(18)

- 또한, 세종시 출범 이후 3년 만에 인구가 두배 이상 증가하고 신도시 지역은 각종 생활 편의시설이 속속 들어서는 등 상전벽해의 도시이자,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고 있어 신도시와 조치원읍 간의 주거와 생활환경의 격차는 날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세종시의 관문인 조치원역 바로 옆에 1일 4만장 생산능력을 갖춘 강원연탄공장이 위치하고 있어 조치원 구도심 활성화와 도심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주거·생활환경의 격차해소 및 조치원 구도심 활성화 등 조치원읍 발전을 위해서는 강원연탄공장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춘조치원프로젝트와 연계한 환경 개선 관련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본 연구모임을 발족하게 된 것임.

□ 연구모임 목적

○ 강원연탄공장 관련 다수민원 해결방안 강구

- 비산 먼지로 인한 주변상가, 주택 등에서 민원 발생
※ 2011.03.09., 2012.01.25. 등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 야적장 개선(방진덮개, 살수시설), 이송시설 밀폐, 낙탄 저장조 개선 및 작업장 주변 환경개선 종합대책 마련

○ 조치원읍 강원연탄공장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모색

- 조치원 원도심 문제 해결을 위한 청춘조치원프로젝트와 연계한 환경개선 방안 마련



타시도의 연탄공장 모범적인 운영사례 체험 및 공유를 통해 강원연탄공장 환경 개선방안 마련으로 시민불편 해소

□ 연구모임 운영개요

- 모 임 명 :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의원연구모임」
- 과 제 명 :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개선방안 마련
- 운영기간 : 2015. 3월 ~ 12월(10개월간)
- 소요예산 : 5,000천원

< 세부 사업내역 >

사 업 명	사업내용	사 업 비	비고
계		5,000	
연구모임 지원	급식비, 참석수당, 현수막 제작 등 홍보비,	2,000	
전문가 초청토론회	자문수당, 원고료, 시민참석자 김밥 등 다과제공	1,000	
보고서 발간	100부	2,000	

○ 사업내용

- 모범적으로 운영있는 친환경 연탄공장시설의 비교견학을 통해 주민갈등 해결사례 및 환경개선 사례 연구분석 및 도입 추진
- 관련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시된 환경개선 관련 정책대안에 대해 실효성 여부를 검토분석한 후 사업주에 의견제시
-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서를 발간, 활동상황을 기록으로 남기고 배포를 통해 강원연탄공장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과 공감 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숙원사업 조기해결

○ 주요 활동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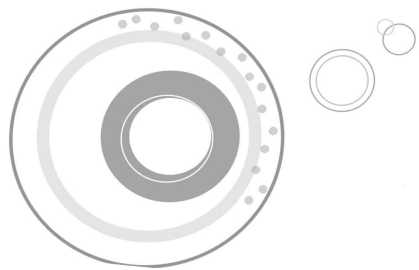
순번	기 간	활 동 내 용	비고
1	‘15. 2월 ~ ‘15. 3월	○ 연구모임 개최 - 강원연탄공장 기본현황 청취 및 향후 활동방안 등 논의	
2	‘15. 4월 ~ ‘15. 5월	○ 연구모임 개최(제1차 현장방문) - 선진 우수시설 비교견학	
3	‘15. 6월 ~ ‘15. 7월	○ 연구모임 개최(제2차 현장방문) - 선진 우수시설 비교견학	
4	‘15. 7월	○ 연구모임 개최 - 선진 우수시설 및 주민갈등 해결 사례 비교견학 실시결과에 대한 의견교환 및 토론	
5	‘15. 8월	○ 연구모임 개최 - 선진 우수시설 및 주민갈등 해결 사례 비교견학 실시결과에 대한 의견교환 및 토론	
6	‘15. 10월	○ 관계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 강원연탄공장 환경개선 정책대안 에 대한 토론 및 질의·응답	
7	‘15. 11월	○ 연구모임 개최 -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서 심의	
8	‘15. 12월	○ 보고서 발간·배포 - 연구모임 활동상황 본회의 보고	

□ 기대효과

- 강원연탄공장 환경개선을 통한 주민숙원사업 해결
- 청춘조치원프로젝트와 연계한 도심재생사업으로 균형발전 기여



Ⅲ.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의원연구모임」 활동상황



□ 회의 개요

- 일 정 : 2.13(금) 11:00~12:00 / 3층 소회의실
- 참석자 : 서금택 대표의원 외 8명 * 간사 : 이홍준 전문위원
 - 의원 : 서금택 대표의원, 박영송 의원, 이태환 의원
 - 시민 : 장교진(연탄공장 인근거주 주민), 유진성(철도 전문가)
 - 시청 : 광점홍 일자리정책과장, 권순태 청춘조치원과장(불참)

〈 강원연탄 공장현황 〉

- (위 치) 조치원읍 으뜸길 177 / 사업주 : 윤영수(73세, 서울 거주)
- (면 적) 3,145㎡ (철도 임대 2,000㎡, 개인 1,145㎡) ※ 저탄장 : 795㎡
- (생 산 량) 1,400만장/년, 4만장/일, 16톤/시간당
- (공급지역) 세종, 충남(천안, 공주, 예산), 충북(청주, 청원), 경기(안성, 안양)

□ 회의결과

- 연구모임의 취지·목적, 연탄공장 기본현황 및 진행상황 설명
- 향후 활동방안 논의 및 의견수렴 (붙임 참조)
- ⇒ **열악한 시설구조로 2차 피해 우려, 조치원읍 및 균형발전 저해 요인**

< 자료 요구 내용 >

- 강원연탄공장 허가 경위 및 저탄장 운영 실태 확인
 - 인허가 과정 연혁, 지번별 조서(면적, 소유자 등) 등 제출
 - 허가, 부지임대 계약 과정 등 관련기관 행정처리 절차 확인
- 허가 과정에서 관련 근거 및 타 시도 공장이전 사례 조사
 - * 완충녹지지역 저탄장 설치 가능 여부 등 관련 법령 검토
- 공장 폐업시 보상 방안 및 현황 측량 실시 검토(기간, 예산 등)
 - * 타시도 보상 사례(자체재원 또는 국비 지원 여부 등)
-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강원연탄공장 임대 관련 공문 사본 제출

□ 향후 계획

- 3월중 제2차 회의개최 실시 검토 (날짜 미정)
- 회의 자료 수집·정리 및 관련 사업현황 조사 등

〈 주요 의견(건의) 내용 〉

건의자	건의내용	비고
장교진 (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연탄 공장 인근에서거주하고 있음 → 최소한 덮개라도 씌워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기 바람 ○ 현) 사장이 인수하면서 재허가해준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장 (795㎡) 허가면적을 초과해서 공장 운영하고 있음 → 검은 연기가 나지않고 허가면적 범위 내에서 영업하도록 조치요망 	
유진성 (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부지 임대관련 자료는 회계서류라서 보존기간이 5년이기에 자료가 없을 것임 - 인계인수시 누락된 것으로 보여짐 	
서금택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시정질문시 강원연탄공장 현황측량을 언제할 건지 질의한적이 있는데, 아직 까지 진행되지 않는 데, 그이유는 ? → 그렇다면 언제 현황측량을 실시할 계획인지 ? ○ 저탄장 관리시 방진망의 1/2까지만 원료를 쌓아두도록 공문발송 요망 	
박영송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까지 정부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는 지 ? - 아니면, 공장운영을 계속하게되면 정부 보조금을 계속지원하는 건지 ? 	

〈 자료 요구내용 〉

건의자	자료요구 내용	비고
서금택 의원	① 강원연탄공장 지번별 조서 (면적, 소유자 등 포함) 제출바람. - 지적도면 등에 표기 (한눈에 보기쉽게) ② 건축허가면적은 얼마인지 ? - 미허가면적 (불법운영실태 여부) ③ 완충녹지지역에 저탄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 ? ④ 저탄장내 돐을 설치할 수 있는 지 ? ⑤ 강원연탄공장 주변 도시계획 수립내용	
박영송 의원	① 강원연탄공장 인허가과정 등 연혁을 도면 또는 도표를 작성하여 제출바람 - 1988년 : 공장등록, 1998년 완충녹지지역 고시, 연도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강원연탄공장간 임대여부 등 - 공장허가시 기계설비, 방진망 설치 등 구비서류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여부 등 ※ 언제부터 잘못되었는지의 판단기준 ②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강원연탄공장 임대 관련 자료요청 공문사본 제출요망 ③ 연탄공장 관련 타 시도 보상현황 (5년 이내)	

□ 회의 개요

- 일 정 : 3.23(월) 11:00~12:00 / 2층 회의실
- 참석자 : 서금택 대표의원 외 7명(전원참석)
 - 의원(3) : 서금택 대표의원, 박영송 의원, 이태환 의원
 - 시민(2) : 장교진(연탄공장 인근거주민), 유진성(철도 전문가)
 - 시청(3) : 광점홍 일자리정책과장, 권순태 청춘조치원과장, 이홍준 전문위원
- 진행흐름 : 경과보고 및 인사말씀→자료조사 결과발표(광점홍)→토의 등
- 회의내용 : 1차 회의간 요구자료 조사결과에 대한 연구·토의, 1차 현장방문 추진계획 논의 등

□ 주요 논의내용

- (서금택, 장교진) 저탄장 분진방지 덮개사용 요구(공문발송/의장▶시장)
 - ☞ (광점홍) 완충녹지지역내의 신규설치불가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요구
- (서금택, 유진성) 우리시와 유사여건의 타 지자체 방문, 운영실태·보상방안갈등해결 등 수범사례 검토
 - ☞ ① 서울 금천구, 대전 회덕, 충북 음성·괴산 지역 중 방문계획 수립실시
 - ② 여수(보상폐업)·문경(상주시 이전) 사례 조사실시 /일자리정책과(서면)
- (서금택) 우리시에만 연탄을 보급토록 수급계획 필요
- (장교진) 전의·소정(탄약창 인근) 이전 가능여부
 - ☞ (유진성) 지역주민의 절대반대, 회차시설 등 열악, 과도한 예산수반
- (박영송) 업체의 폐업보상 100억 요구, 현실적 불가능
- (권순태) 현 연탄공장 이전시의 사후관리·활용사례 등 조사필요

□ 향후 계획

- 4월중 1차 현장방문 추진계획 수립실시 ※제28회 임시회이후
 - 집행부 사전협의, 후보지 사전답사, 방문대상 지자체·사업장 협의
- 〈 불 임 〉 2015년도 강원연탄 운영대책 연구모임 추진일정 1부.



1. 운영기간 : 2015. 2. ~ 12. (11개월간)
2. 연구과제명 :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개선방안 마련
3. 연구모임 추진일정

순번	기 간	활 동 내 용	비고
1	‘15. 2월 ~ ‘15. 3월	○ 연구모임 개최 - 강원연탄공장 기본현황 청취 및 향후 활동방안 등 논의	
2	‘15. 4월 ~ ‘15. 5월	○ 연구모임 개최(제1차 현장방문) - 선진 우수시설 및 주민갈등 해결 사례 비교견학	
3	‘15. 6월 ~ ‘15. 7월	○ 연구모임 개최(제2차 현장방문) - 선진 우수시설 및 주민갈등 해결 사례 비교견학	
4	‘15. 7월	○ 연구모임 개최 - 선진 우수시설 및 주민갈등 해결 사례 비교견학 실시결과에 대한 의견교환 및 토론	
5	‘15. 8월	○ 연구모임 개최 - 선진 우수시설 및 주민갈등 해결 사례 비교견학 실시결과에 대한 의견교환 및 토론	
6	‘15. 10월	○ 관계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 강원연탄공장 환경개선 정책대안에 대한 토론 및 질의·응답	
9	‘15. 11월	○ 연구모임 개최 -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서 심의 및 의견교환	
9	‘15. 12월	○ 보고서 발간·배포 - 연구모임 활동상황 본회의 보고 및 발간을 통해 연구성과 공유	

□ 방문개요

- (방문일시) 2015. 4. 20(월) 10:00 ~ 16:00
- (방문장소) 흥진연탄·세창글로벌(대전 대덕구) / 경동개발(충북 음성군)
- (참석인원) 9명(서금택 운영위원장, 유진성·장교진, 이홍준 전문위원 외 3인,)

□ 방문내용

☞ 공장현황 청취 및 시설 견학, 주민 갈등해결 사례 탐구

- (주)흥진에너지 (대표)
 - 도심외곽 철로와 천변 부근으로 지역 주민 마찰×, 상시분진 대비
 - 도시내 산재된 공장들이 석탄법 시행후 현위치(대전 신대동)공장이 집적화
 - 인력확보 곤란, 가동율은 60~70% 수준, 북(수원), 서(논산), 남(상주), 동(청주) 등 전국각지 보급
- (주)세창글로벌 (대표) ※ 흥진에너지와 교접하여 위치, 유사여건의 공장운영
 - 연탄 1장당 가격 : 370.50전(공장가격) + 운송비(100원) = 480원~500원 정도
- (주)경동개발 (대표)
 - 영세업체에서 자동화 설비는(지게차 등 장비 고가) 여건상 어려움
 - 사양산업이지만 공장을 폐업하거나 축소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방문결과

구 분	현 황		저탄장 관리방법	기이사항
	부지면적	저탄장 면적		
주)흥진에너지	19,000㎡	4,000평 정도	저탄장 포장설치	세륜시설
주)세창글로벌	11,043㎡	3,000평 정도	저탄장 포장설치	세륜시설
주)경동개발	27,079㎡	3,000평 정도	주변 방진망 설치, 저탄장내 포장설치	파레트(400장)로 랩에 포장판매

□ 향후계획

- 공장운영 등의 우수사례에 대해 우리시와 비교분석 연구자료로 활용 및 시정에 반영여부 등 결과보고서 작성(집행부)

[대전 대덕구 (주)흥진에너지] - 2015.4.20.(월), 9명



공장현황 청취 및 질의응답



공장내 저탄시설 견학

[대전 대덕구 (주)세창글로벌] - 2015.4.20.(월), 9명



공장 전경



공장내 저탄시설 견학

[충북 음성군(주)경동개발] - 2015.4.20.(월), 9명



공장 전경



자동화된 공장내부시설 견학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15. 6. 11.(목)10:00~
- 방문장소 : 2개소(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충북 음성군 경동개발)
- 참 석 : 13명
 - 위 원(4) : 서금택·박영송·이태환 의원, 장교진(인근 주민)
 - 집행부(6) : 경제산업국장, 청춘조치원과장, 녹색환경과장, 도시과장 등
 - 운영위(3) : 이홍준 전문위원외 2인
- 내 용 : 철도부지 임대현황, 공장운영 실태 및 시설건축 등

□ 주요내용

〈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총괄) 〉

- ▷ (연구모임) 세종시 관문인 조치원역 주변 정비 필요, 저탄장(795㎡) 신고 면적범위내에서 임대계약 체결하도록 건의(서금택의원)
- ▷ (철도공사) 추후, 임대계약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시 반영검토

〈 충북 음성군 경동개발(총괄) 〉

- ▷ (연구모임) 모범적인 선진시설을 견학을 통해 비교분석하고, 우수사례는 강원연탄공장에서도 시설개선토록 행정계도(서금택의원)
- ▷ (경동개발) 연탄산업은 사양산업으로 대부분 영세업자로서 과감한 시설 투자는 어려움,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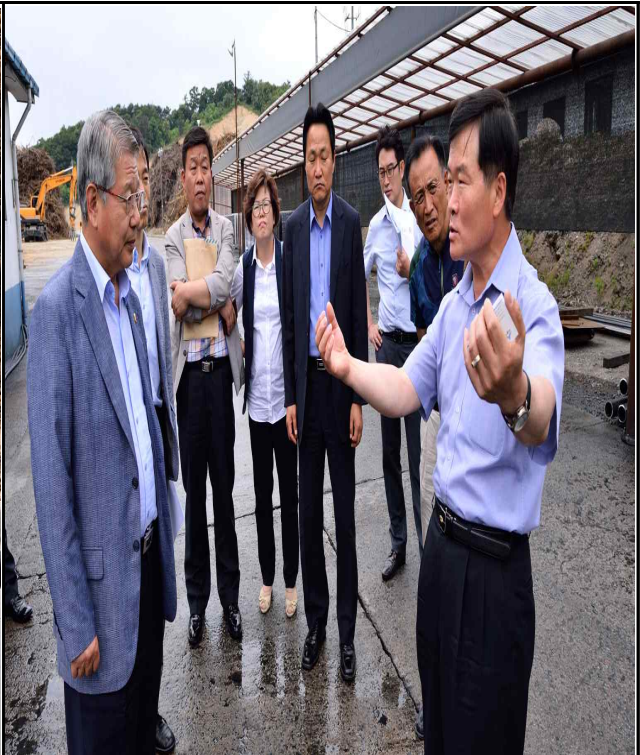
□ 종합의견

- 제2차 현장방문 결과,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에 대해서는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필요(집행부 적극 추진의지가 관건임)
- 〈단기적〉 : 강원연탄공장에서 자발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도록 유도
(방진망, 저탄장덮개처리, 세륜시설, 스프링클러, 침전지 등)
※ 집행부에서 「강원연탄공장 전담 T/F팀」 구성 필요(분야별)
- 〈중기적〉 : 강원연탄공장을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체부지 확보 및 이전 보상비(100억원 정도) 과다소요로 이전곤란

사진자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의원연구모임」 제4차 회의(2차 현장방문)

「충북 음성군 소재 (주) 경동개발」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붙임 1

질의·답변 내용

<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

연번	질의·답변내용	질 의 자 (답변자)		비 고
		직 위	성 명	
계	5건			
1	(건의) 저탄장 시설(795㎡)로 신고된 면적에 대해서만 귀 공사에서 임대해줄 용의는 있는지 ?	의 원	서금택	세종시
	(답변) 철도공사법 및 철도사업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신청면적대로 임대계약 체결해야 함.	팀 장	황정환	한국철도공사
2	(건의) 향후, 임대계약 갱신시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시 사용용도를 저탄장으로 지정하지 말고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건의 ※ 저탄장 795㎡ 中 완충녹지(410㎡), 주거지역(385㎡)	국 장	안승대	세종시
	(답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리검토를 통해서 추후, 임대계약 체결시 반영하도록 하겠음	팀 장	황정환	한국철도공사
3	(건의) 임대계약후 임대기간동안 사용자가 당초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 전용한 사항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은 없는 지 ?	전 문 위 원	이홍준	세종시
	(답변) 임대계약(3,000㎡)체결 후 불법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철도공사는 토지만 임대해주는 것임. 어떤 제재나 강제할 수가 없음	팀 장	황정환	한국철도공사
4	(건의) 인근 지역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싶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불법사항에 대해서서는 조치하여 주시고 막아 주기 바람	연 구 위 원	장교진	세종
	(답변) 환경관련 민원문제는 관련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서 지도단속권한이 있음. 철도공사에서는 아무런 권한도 조치도 할 수가 없음	팀 장	황정환	한국철도공사
5	(건의) 완충녹지 불법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 공문(도시과 - 4503, 2015.3.20.자)에 대한 결과를 회신할 용의 는 있는 지 ?	도 시 과 장	강성규	세종시
	(답변) 공문접수후 담당자와 법리검토를 하였으나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양별규정(임대인, 임차인)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신불가함	팀 장	황정환	한국철도공사

〈 충북 음성군 경동개발 〉

연번	질의·답변내용	질의자 (답변자)		비 고
		직 위	성 명	
계	2건			
1	(건의) 연탄공장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함. 따라서 정부보조금을 연탄을 구매하는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 장	안승대	세종시
	(답변) 연탄 1장당 정부보조금이 271원인데, 누가 연탄을 얼마만큼 사용하는지, 파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많아서 연탄공장에 지원하는 것이 훨씬 편리할 것임.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임	대 표	노재명	경 동 개 발
2	<p>(기타 1) 우리 경동개발처럼 분진망 설치, 파레트, 랩 등은 원가상승의 주요 원인이나 인력난으로 인해 시설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 공장과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4억~ 6억정도 시설비가 소요되는데, 강원연탄공장 같은 중소영세업체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p> <p>(기타 2) 3개월에 유지비가 20만원 정도 되는데, 기름이나 도시가스 요금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용하는 서민이 있어 연탄이 필요함. 이에 정부에서도 2020년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임. 그러나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서울과 대구에서는 연탄공장 이전을 위해 10여년 이상 노력하고 있으나 대체부지 확보 및 이전 보상비 과다 등으로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p> <p>(기타 3) 탄광운영업체 및 탄광 근로자에게는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연탄공장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지원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연탄공장의 시설개선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 우리 경동개발처럼 시설투자를 하는 곳은 전국 어느지역에도 없을 것임. ※ 표본으로 삼아야지 우리공장 시설투자 하기는 어려울 것임.</p>	대 표	노재명	경 동 개 발

□ 회의개요

- (회의일시) 2015.7.22.(수)11:00~
- (회의장소) 의회소회의실(3층)
- (참석인원) 15명
 - 의 원(4) : 연구모임 대표 서금택의원, 박영송·이태환 의원
 - 회 원(1) 장교진(시민) / 유진성(불참 : 하계휴가 중)
 - 집행부(8) : 청춘조치원과장, 일자리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도시공원담당, 관계공무원(4인)
 - 운영위(3) : 이홍준 전문위원외 2인
- (회의내용) 그동안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관련 추진상황 청취, 현안과제 토의 및 향후 활동계획 협의 등

□ 주요 토의내용

- (서금택의원) 건축물 현황 파악, 현황측량 결과 경계표지석 설치
- (박영송의원) 저탄장 부지(795㎡) 초과면적에 대한 조치계획은
- (일자리정책과장) 강원연탄공장, 석탄가공업 변경신고(당초 795㎡ → 변경 3,000㎡) 민원서류 접수(2015.6.18.) 처리결과 → 불가처분(2015.7.15.)

❖ (주안점) 당초 신고면적(795㎡)외 사용중인 저탄장 부지(3,000㎡)에 설치된 방진망 철거여부에 대해 내부검토 중 → 철거여부는 신중한 실익판단* 검토 필요

* 「도시공원법」에 따르면 완충녹지에는 시설물 등 구조물 설치불가

※ 강원연탄측(증전부터 완충녹지 사용, 기득권 주장) ↔ 집행부(주민편익으로 방진망 설치권고/ 공원법 위반)

※ 초과면적(3,000㎡)에 설치된 방진망(3,000㎡) 철거여부는 검토중

- (청춘조치원과장) 청춘조치원프로젝트사업과 연계 환경개선방안 검토 중
 - (환경정책과장) 전문기관 정밀기술진단 의뢰 중(한국환경공단 등 3개기관)
 - (도시공원담당) 불법점용 완충녹지(410㎡) 소송결과에 따라 법적조치
- ※ 불 입 : 회의자료 및 주요의견·답변내용 1부 끝.

□ 향후계획

- 「제6차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 개최 : 8월말



붙임 1

주요의견·답변 내용

구 분	제 안(의견) 내 용	비 고
서 금 택 대표의원	○ 현황측량 결과, 경계점에 표지판 설치요망	일자리 정책과
	○ 강원연탄공장의 부지를 보면, 토지면적이 2필지 724㎡ 인데, 공부상 건축 면적(1층)은 646㎡임(제2종 근린생활시설) - 관련부서에서는 건폐율이 적법한지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원리 141-31(245㎡), 원리 141-32(479㎡) → 전문위원실 검토결과), 현행 공부상 건폐율은 89.37%로 구) 연기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적법함(상업지역 건폐율 90% 이하) ※ 현행, 세종시조례 : 건폐율(상업지역 80% 이하)	건축과
박영송 의원	○ 석탄가공업 변경신고에 대해 반려처분 했다면 향후, 불법점용한 저탄장부지(2,205㎡)에 대한 조치계획은 있는 지 ? → 석탄가공업 관련해서는 과태료 부과외에 다른 행정처분은 할 수 없음(일자리정책과장) 다만, 도시과와 환경부서에는 고발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음(관계법령)	일자리 정책과
고 재 홍 도시공원 담당	○ 「세종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에 따르면, 완충녹지는 시장·군수에게 점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점용허가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3년 이내로 규정함 - 따라서, 현황측량 결과, 저탄장부지 795㎡ 중 완충녹지(410㎡) 불법점용 부분은 현재 소송 진행중인 행정처분취소 판결에 따라 법적 조치 가능 (원상회복명령 효력중지)	도시과

구 분	제 안(의견) 내 용	비 고
장교진 회 원	○ 석탄가공업 신고된 저탄장(795㎡)내에서만 저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 실제 사용 저탄장부지(3,000㎡ → 2,205㎡ 增)	일자리 정책과
	○ 저탄에는 포장이 설치되었으나, 현재에도 저탄장 전체부지(3,000㎡) 바닥에는 분진가루로 새까맣게 오염되어 있으며, 비산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전혀 없음.	"
	○ 비산먼지 대책으로 강원연탄공장내에 세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환 경 정책과
	○ 타 시·도 공장 견학결과, 가동율이 60%로 나타남. 따라서, 강원연탄공장에서도 생산량 을 줄이거나 타 시도 수준에서 공장을 가동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일자리 정책과
전 석 천 환경정책 과 장	○ 비산먼지 예방대책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하고 있음. 따라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 을 다할 계획임 - 세륜시설 설치검토, 환경개선을 위한 전문기관 정밀 진단 등	환 경 정책과
김 성 수 청 춘 조치원과장	○ 관련부서별로 시기별·절차별로 개선방안 마련 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음 - 다만, 여건성숙 및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서두를 수 없다는 점 양해바람 - 청춘조치원과에서도 청춘조치원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구상 하고 있음 → 이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강원 연탄공장문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회원님들 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림	환 경 정책과

구 분	제 안(의견) 내 용	비 고
<p>광 점 홍 일자리정책 과 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가공업 변경등록 신고에 대해 반려처분 하였음. ○ 현재, 설치된 방진망(3,000㎡)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할지 신고면적(795㎡)내에서는 존치를 해야될지 검토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완충녹지에는 저탄장으로 사용불가 ○ 저탄장을 돔으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완충녹지로 인해 설치불가 의견 ○ 강원연탄공장측에서는 연탄제조업 등록(1988년) 이후 완충녹지(1993년)지역으로 지정되었기에 기득권을 주장하는 등 시와의 현격한 입장차이 상존 	<p>일자리 정책과</p>

□ 회의개요

- (회의일시) 2015. 8. 27.(목)11:00~
- (회의장소) 의회소회의실(3층)
- (참석인원) 13명
 - 의 원(1) : 연구모임 대표 서금택의원
 - 회 원(1) : 장교진(시민) / 유진성(불참 : 출장)
 - 집행부(8) : 청춘조치원과장, 일자리정책과·환경정책과 업무담당 (2) 및 도시과·건축과 업무담당자(6)
 - 운영위(3) : 이홍준 전문위원외 2인
- (회의내용) 그동안 추진상황 청취, 토론 및 향후 활동계획 협의 등

□ 연구모임 서금택 대표의원 당부사항

- 연구모임 활동기간이 얼마남지 않음.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공장 시설개선, 장기적으로 도심재생사업과 연계 대안마련 필요

□ 주요 토의과제(요약)

- (청춘조치원과) 도심재생 측면에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포함하여 집객시설을 유치하거나 쾌적한 주거를 위한 도시재생기반시설*로 재창조
 -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할 경우 수용권한 발생
- (환경정책과) 비산먼지 종합대책안 마련 中(전문가 현장조사 등)

- ① 세륜시설 대체설비 개선·보강 : 철판그레이팅(1차) → 2차(전동브러쉬), 3차 클린존 설치
- ② 이송시설 밀폐 : 이송시설 오픈 → 저탄 이송시설 밀폐(터널식)
- ③ 저탄장 개선 : 방진덮개 부분 설치 → 저탄장 3등분으로 분할하여 방진덮개 설치
- ③ 초기 우수처리 및 낙탄 저장조 개선 : 우천시 낙탄가루 유출 → 3단계 여과시설 설치
- ④ 작업장 주변 환경개선(작업장 열악한 → 작업도구 등 별도 보관장소 마련)

□ 향후계획

- 「제7차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 10월초



붙임 1

주요의견(토론) 내용

구 분	제 안(의견) 내 용	소관부서
서 금 령 대 표 의 원	○ 도심재생활성화계획과 연계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피해 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에 힘써 주기 바람	청 춘 조치원과
	○ 2014년도 일자리정책과에서 완충지역 관련 민원회신 공문과 2014년도 도시과에서 민원 회신된 공문내용중 완충녹지 지역의 위치가 다르게 표시됨.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바람	일자리 정책과 · 도시과
	○ 당초 저탄장 신고면적(795㎡)을 초과하여 불법 점용하고 있는 완충녹지가 원상복구 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도 시 과
	○ 강원연탄공장 관련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주기 바람 ※ 소장번호(대전지방법원 2015 구합102483)	
	○ 공부상 공장면적(507㎡)이 실제로 맞는지 실측할 필요가 있음. 실측을 해서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이행해야 할 것임 실측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물대장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임	건 축 과
	○ 강원연탄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측정결과 기준치 이내이고, 7.27. 철도소음 측정결과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치보다 야간소음이 초과함에 따라 세종시에서 추진중인 저탄장 이설사업이 완료되면 방음벽이 설치 되도록 노력(한국철도시설공단충청본부)	전 부 서
	○ 어느 한부서의 노력만으로 강원연탄공장 문제가 해결될 수 는 없다고 봄. 관련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일사분란하게 공동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	전 부 서

구 분	제 안(의견) 내 용	비 고
장교진 회 원	○ 석탄가공업 신고된 저탄장(795㎡)내에서만 저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 실제 사용 저탄장부지(3,000㎡ → 2,205㎡ 增)	일자리 정책과
	○ 당초 신고된 면적(저탄장 : 795㎡)범위내에서 공장을 운영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데에도 영업이익을 위해 공장규모를 무단 으로 확충하면서부터 주민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함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저탄장(795㎡)에 대해 경계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주기바람	"
	○ 주민들의 바람은 공장등록된 면적의 범위내 에서 연탄공장이 가동하였으면 함 따라서, 공장등록된 면적내에서 공장이 운영 되도록 행정계도하여 주기바람	"
이 홍 준 전문위원	○ 현행, 「건축법」 상으로 접근할 수는 없지만,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재산 또는 인명피해 및 사고예방을 위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안전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한 측면이 있는 데, 현행법으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여겨짐. 따라 건축주에게 안전문제를 주지시키는 방안이 개선권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건축과
정 찬 희 환경지도 담당	○ 비산먼지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강원연탄공장 문제해결을 위해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앞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 등을 거쳐 환경개선 관련 최적의 대안을 시급히 마련할 계획임	환 경 정책과

□ 회의개요

- (회의일시) 2015. 10.7.(수) 10:30~ /(회의장소) 의회소회의실(3층)
- (참석인원) 40명 정도(시의원,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 (회의내용)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 소관별 추진상황 청취, 전문가 주제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 등

□ 서금택 대표의원 인사 및 당부말씀

- 행정소송(2건, 석탄가공업 변경신고 불가처분 취소, 불법점용 완충녹지 원상회복 취소) 대응 철저, 강원연탄공장 주민피해방지 시설개선 노력, 시민 적극참여 등 민·관·업체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해결방안 모색 필요

□ 주요 토론내용(요약)

- (박영송의원) 주민 요구사항인 이전·폐업 등 현재 특별한 대책없음.
‘주민대책위’ 구성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시기임
- (전문가의견) 단기적으로는 원도심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산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해결. 장기적으로는 세종시 역점사업인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와 2030 세종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다양한 정책사업의 추진 방안 제시.
- (관련부서 의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포함, 시민참여방식 도입, 비산먼지발생 종합대책안 마련 中, 공익사업 추진(정책조정위 상정), 국토부 방문 협의(완충녹지 임대제한 → 한국철도공사 공문 통보예정)
- (주민의견) 불법사항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확행, 공영개발 방식(박물관, 기업전시관) 건의, 참석한 대다수의 주민들은 市에서 부지매입 공익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전 또는 폐업을 원함

□ 향후계획

- 「제8차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의원연구모임」 회의 : 11월중
-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 및 의견수렴 등



붙임 1
주요의견(토론) 내용

구 분	제 안(의견) 내 용	비 고
서 금 택 대표의원	○ 민·관·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일자리정책과
	○ 석탄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불가처분 취소 와 불법 완충녹지 점용 원상회복 명령 취소 등 행정소송 대응철저	일자리정책과 도 시 과
	○ 강원연탄공장에서 주민피해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노력	강원연탄공장
	○ 주민대책위에서도 관계기관 및 대정부에 건의활동 전개	주민대책위
박 영 송 의 원	○ 현 위치는 공장이 협소함. 타시도 공장에서는 연탄을 랩핑해서 연탄을 저장하는 곳도 있음 선진 모범사례는 업체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주민들은 공장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요구하 는 데, 시에서도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앞으로 강원연탄공장 문제해결을 위해 플랜 카드 게첨, 관계기관 방문 건의 등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시기임	강원연탄공장 주민대책위
장 교 진 회 원	○ 주민피해 예방을 위한 행정이 이뤄졌으면 함. 공장이동율이 60%미만이며, 빨래를 널수가 없으니 연탄분진이 날리지 않게 조치바람. - 불법 완충녹지 점용 관련 원상회복 명령조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 지 ? - 전)사업주와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현) 사업주 는 주민의견에 귀기울이지 않음.	일자리정책과 도 시 과 환경정책과 강원연탄공장

구 분	제 안(의견) 내 용	비 고
세종·충북 환경보전 협 회 정인구 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장 길이가 크므로 3등분해서 방진덮개를 설치하도록 시설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 살수시설 개선 조치 ○ 이송과정을 터널식 또는 커튼식으로 시설개선 조치 	환경정책과
충남도전문 건설협회장 박 상 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에서 매입, 공익사업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이용시 운송비 절감 등 인근 대전·청주 보다 공장입지가 매우 좋음. - 환경개선은 연이군 시절부터 대두된 문제이므로 강제적 또는 자발적으로 이전추진해야 할 것임 	일자리정책과 청춘조치원과 환경정책과
조치원신협 한 상 훈 이 사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탄공장으로 인해 피해가 아주 심각한 수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원발전 토론회에서 발표내용을 보면 연탄 공장 관련해서는 현재 법정소송중이며, 다른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임 - 도시재생이 아닌 재개발을 해야하며,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건의 예) 시민이 함께하는 공연장 또는 컨벤션센터, 기업전시관 등 활용방안 검토 	청춘조치원과
연 기 군 (전)부군수 박 영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연탄공장 문제 관련 환경개선은 이미 시기가 지났음. 다음단계인 이전방안이나 도시재생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지금부터라도 구상할 필요가 있음 예) 철도박물관, 연료박물관 등 활용방안 검토 	일자리정책과 청춘조치원과

구 분	제 안(의견) 내 용	비 고
세종시균형 발전대책위 반 이 작 위 원 장	<p>○ 강원연탄공장은 1960년대부터 가동된 것으로 알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권경대 사장부터 현) 윤영수 사장까지이며, 당초보다 공장면적이 3배 이상 증가함 - 법적인 범위내에서 이전 또는 폐업방안 검토하여 주기 바람 - 행정에서는 주민피해예방보다 공장의 편의를 봐주는 행정으로 시민들은 이해불가한 행정행태로 보임 - 의회도 신청사로 이전하면 관심부족할 것으로 이전 또는 폐업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여 주기 바람 	일자리정책과 청춘조치원과 환경정책과
해동모텔 대 표	<p>○ 건물에 연탄가루(분진)가 쌓여있음. 강원연탄 공장에서 저탄장으로 약4천평을 사용중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영업을 못하도록 조치하여 주기바람 	환경정책과
조치원읍 정리 주민	<p>○ 토론회 개최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을 포함해서 학술적·논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바람 - 오늘 참석하신 주민들은 이전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전에 따른 소요재원은 부족하다고 생각되나 신도시는 깨끗한 환경속에서 살고 있는 데, 조치원읍 주민들은 개발격차로 인해 많은 소외감을 받고 있음. 	일자리정책과 청춘조치원과 환경정책과

□ 회의개요

- (회의일시) 2015. 11.13.(금) 11:00~ /(회의장소) 의회소회의실(3층)
- (참석인원) 12명 (서금택 · 박영송 · 이태환의원, 유진성 · 장교진 의원, 청준조치원과장 · 환경정책과장, 이홍준전문위원 등 관계공무원)
- (회의내용)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서(안) 의견수렴 및 심의 등

□ 서금택 대표의원 인사 및 당부말씀

- 오늘, 활동결과 보고서(안)이 마련되었다고 강원연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님. 세종시, 시의회, 업체대표, 시민들에게 각자 주어진 역할이 있음. 강원연탄공장 문제해결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 산적한 과제를 풀어나가야 함.

□ 주요 내용(요약)

- (서금택 대표의원) 지역주민은 가만히 있는데, 세종시와 의회가 앞장서고 있다는 일부 여론이 있음. 세종시, 시의회, 지역주민이 모두 함께 강원연탄공장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임
- (박영송의원) 주민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 市차원의 해결노력이 부족함 당초 등록된 저탄장 면적(795㎡) 준수 사용 등 조치(표지판 설치 등)
- (이태환의원) 지역의 현안사업인 강원연탄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수면위로 끌어올린 것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임.
- (장교진의원) 강원연탄공장으로 인해 직접피해를 입음 ① 지역주민이 인정하거나 또는 확실한 법적근거에 따라 저탄장(795㎡) 위치를 확정하고, 경계선에 따라 방진벽 설치 요망 ② 저탄장 비산먼지 발생신고서를 재신고하도록 조치 ③ 공장등록 신고면적 (795㎡)에 대해서만 임대토록 철도공사 공문발송 조치 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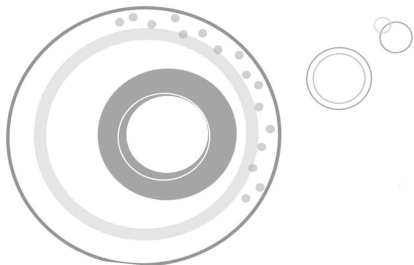
□ 향후계획

-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발간 및 12월중 본회의 제출





Ⅲ. 관련부서별 추진상황



1 일자리정책과 소관

《공장 현황》

- (위 치) 조치원읍 으뜸길 177 (원리 141-32번지)
- (최초등록)'75.8.20.(충남도 허가), 현 대표 '88.3.7.승계(저탄장 면적 795㎡)
※ 2001.12.31. 등록규정 개정, 광역 시·도 → 기초 시·군·구 이관(구 연기군)
- (면 적) 4,145㎡ (철도 임대 3,000㎡, 개인 1,145㎡)
- (생 산 량) 1,400만장 / 년, 4만장/일, 16톤 / 시간당
※ 연탄제조 안정지원금 271원 / 장당('14년 약 28억원 국비 지원 / 10,627천장)
- (임대부지현황) 철도청('88~'05)795㎡, 철도공사('06~'14)2,000㎡, ('15)3,000㎡

□ 추진상황

- ('15. 6.11) 완충녹지 원상복구 행정처분 취소(소송제기)
- ('15. 7.16) 등록사항 변경 신고(저탄장 면적 2,205㎡ 증) : 불가처분(소송제기)
- ('15.10.15) 철도공사 임대부지 계약 시 적법 임대 요청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 ('15.10.29) 철도부지 주변지역 완충녹지 등 매입요청(철도공사)
- ('15.10.28, 11.6) 철도부지 임대(저탄장 용도) 재계약 시, 토지이용 목적과 부합되도록 임대, 등록면적 795㎡ 이내로 제한 임대요청(철도공사)
- ('15.11. 9) 강원연탄 대표 면담 (환경개선 설명 및 협조 당부)

□ 향후계획

- 강원연탄 등록면적(795㎡) 준수, 철도부지 매입 추진 등(일자리정책과)
- 영업장 환경 자체개선 이행사항 수시 확인(환경정책과)
- 강원연탄을 포함한 조치원역 주변지역 재생방안을 활성화계획에 반영(청춘조치원과)

강원연탄 주변 지적 현황도



참고

석탄가공업 변경등록 신고불가(반려) 행정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관련 진행상황

□ 사건개요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4212 / ' 15. 9.23
- 원 고 : 윤영수 (강원연탄 대표)
 - 소송대리인 : 변호사 최호숙
- 피 고 : 세종특별자치시장
- 소 가 : 50,000,000원
- 청구취지
 1. 2015.07.16. 원고에 대한 석탄가공업(연탄제조) 등록사항 변경신고 불가(반려)처분을 모두 취소
 2. 피고는 원고의 변경신고 수리
 3.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사건진행경과
 - '15. 6.18 : 석탄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저탄장 795㎡ → 3,000㎡변경)
 - '15. 6.19 : 저탄장 변경신고 부지 현황 보완 통보
 - '15. 6.29 : 보완 통보(1차) 민원기간 내 미 보완에 대한 통보
 - '15. 7. 9 : 석탄가공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보완서류 제출(강원연탄)
 - '15. 7. 9 : 관련부서 민원 일괄 협의 요청(도시과 등 4개부서)
 - '15. 7.16 : 석탄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불가 알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저촉)
 - '15. 9.23 : 강원연탄(대표 윤영수) 행정소송 소장 접수

□ 원고주장

- 「석탄산업법」 제17조제3항에 정한 변경신고에 있어 행정요건이 구비된 경우 반드시 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을 들어 실체적 등록 심사 거쳐 반려처분한 것은 위법
- 27년 이상을 저탄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적법하게 허가하여 왔으나, 갑자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 변경신고를 반려한 것은 그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영업을 하도록 허가하여 준 피고의 선행행위와 행정자치단체의 적법한 허가를 믿고 영업을 하여 온 원고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며, 피고의 처분은 정부의 공공이익을 위한 정책에도 어긋난 행위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 (권리남용의 위법)
- 이에 따라 석탄가공업 변경등록 신고 반려처분을 모두 취소

□ 소송담당자 지정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	서 기 관	곽점홍
	에 너 지 담 당	공업사무관	정인태
	주 무 관	공업 주사	이은형

□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소송수행 방침결정 : 2015. 10. 2.
-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담당자 지명 : 2015. 10. 2.
※ 소송대리인 : 세종시 고문변호사 中 선임
- 답변서 제출 : 소송대리인과 협의 후 변론기일('15.10.22) 내 제출
- 소송 적극 대응 및 소송 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대리인에 대해 승소사례금 지급

2

청춘조치원과 소관

□ 현황 및 추진상황

① 세종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 (범위) 행정구역 중 건설지역(73.1km²)을 제외한 읍·면지역(394.7km²)
- (내용) 세종시 읍·면지역 쇠퇴진단을 통해 도시재생 기본계획 마련
 - *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3개 지역)을 선정 하고 우선순위 설정(1조치원, 2부강, 3전의)

② 세종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 (범위) 도시재생 활성화 우선순위 지역인 조치원역 일원(1.229km²)
- (내용) 세종시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실천계획 마련

③ 그동안 추진상황

- '15.10.15. : 세종시 도시재생전략계획 확정 및 공람공고
- '15.11.13. :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추진계획(내부방침)

□ 청춘조치원프로젝트 연계 방안

- 청춘조치원프로젝트의 도시재생은 과거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지양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시민이 직접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
- 연계방법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강원연탄 공장부지 활용 계획 포함 추진하고, 강원연탄 이전방식은 주민공청회를 통해 일반 주민과 피해 주민의 개선 여론을 조성하는 주민주도 방식 추진
 - 조치원읍 주민 등*이 직접 철도공사와 국토부에 문제를 제기하여 강원연탄의 철도부지(저탄장) 대부계약을 종료하도록 유도
 - * 예) 의회 결의문 채택, 환경단체, 상인단체 등 연탄공장 이전을 찬성하는 단체와 주민

□ 향후계획

-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추진('15. 11월 중 ~ '16.9월)
 - 입찰공고(11.20~11.30), 제안서 평가(12.2), 계약체결 및 용역착수(12.9)
- 제4기 세종시 도시재생대학에서 '강원연탄 환경문제'를 과제로 연구
 - 조치원 원도심 활성화팀(기간 10.31~12.19, 지도교수 권영량, 박창재, 참여자 13)

3 환경정책과 소관

1 현 황

① 일반현황

- 위 치 : 세종시 으뜸길177(조치원읍 원리 141-32)/ 운영수
- 제조시설 : 윤전기 4대(연탄제조업 등록 1988. 3. 7)
- 토지이용 : 사무실 및 제조시설 1,097㎡, 저탄장 3,000㎡(철도공사 임차면적)
※ 저탄장 등록면적 795㎡(석탄사업법), 사용면적 2,524㎡
- 생산능력 : 1일 약4만장(연간 1,200 ~1,400만장), 종업원22명

② 환경 인·허가

대기 배출시설 신고 (1977.03.28./5종)	- 분쇄시설 50HP 1대 / 여과집진시설 170㎡/분 1식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2004.02.21.최초), ' 09.5변경)	- 비금속물질제조시설(석탄제품제조) - 야적,수송 등 / 방진덮개, 방진벽, 살수시설, 철판 그레이팅(세륜대체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제6항 :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기준 준수곤란 할 경우 상응하는 시설로 대체 가능

※ 2015. 7. 10 : 비산먼지 등 오염방지시설 적법여부 검토

2 그간의 추진상황

① 환경정책과 추진상황

- '09.5.8 : 바닥 그레이팅 설치 및 방진벽(110m) 교체
- '12.4.6 : 저탄장 지붕을 설치하여 먼지가 비산되지 않도록 행정
지시 하였으나 완충녹지를 포함하고 있어 축조 불가

- '05. 1~ '15. 6.기준 : 비산먼지, 소음 관련 환경오염행위 행정처분
 - 조치이행명령(2), 개선명령(2), 경고(1) 과태료(2건 68만원)
- 오염도검사 : 총7회, 기준이내[비산(4), 대기(2), 소음(1)]
 - 최근('15.5.8) 비산먼지, 대기오염도, 소음 검사결과
 - ※ 비산먼지 : 0.19(0.5mg/m³), 대기오염도 30.2(50mg/sm³), 소음도 70dB(65dB)
- '15.3.25 : 비점오염 처리시설 퇴적물 준설 및 배수로 정비
- '15.4.16 : 강원연탄 전담공무원 지정 중점관리

※ 사업주 감사원에 진정서 제출(2015. 5. 12) : 사업장 집중감시로 인한 생산 활동저해

- '15.7.10 : 자체정밀 점검을 통한 환경개선 종합대책(안) 마련
- '15.8.19 : 환경개선 전문가 자문단구성 정밀진단*, 환경개선 종합대책(안)에 대한 실효성 검증(*고려대 홍영석교수, 세종충북보전협회 정인구부장, 한국환경공단 박정수, 천석천부장)
- '15.9. 01 : 전문가 자문결과를 토대로 환경개선 종합대책 최종확정
- '15.9. 04 : 환경개선 종합대책 최종확정에 따른 시설개선지시
- '15.10.13 : 시설개선 이행계획서 제출

3 앞으로 추진계획

- 시설개선 이행상태 확인 및 환경관리실태 지속점검
- 주제별 선택·집중을 통한 정밀 지도점검 강화
 - 화차석탄 반입 스케줄 파악, 비산먼지 억제 집중점검
 - 개선이행 상태 철저한 검증 점검, 소음비산먼지 자가측정 강화

① 세륜시설 대체설비 개선 · 보강

- 대책(안) : 1차 철판그레이팅 ⇒ 2차 클린존(젓은부직포 포설), 그레이팅 하부 1일 2회 이상 청소 실시

② 이송시설 밀폐

- 대책(안) : ▲밀폐(터널, 커튼식 택일)시설 설치 비산먼지 억제

③ 야적장 개선(방진덮개, 살수시설 등)

- 대책(안) : ▲ 현장 여건에 맞게 저탄장을 2~3등분으로 분할 방진덮개 설치, ▲방진벽(기둥)에 멀티노즐 설치(자동살수), 방진덮개 고정, 방진덮개 중량 있는 재질 채택

④ 초기우수 처리 및 낙탄 저장조 개선

- 대책(안) : ▲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2~3단조 여과시설(자갈, 모래, 활성탄) 설치 초기우수 여과 후 배출
▲ 낙탄 저장조를 설치하여 낙탄 유출방지

⑤ 작업장 주변 환경개선

- 대책(안) : ▲폐기물은 별도장소를 마련 구획하여 정리보관 또는 매각
▲ 작업도구 별도 장소를 마련 정리 보관

□ 현 황

- 위 치 : 조치원읍 원리 141-54번지 일원
- 면 적 : 약 1,667㎡ 추정
- 행 위 자 : 강원연탄(사업주) * 토지소유자 : 한국철도공사
- 위반내용 : 완충녹지 내 불법 물건 적치 및 야적

※ 한국철도공사에서 강원연탄에 철도부지(완충녹지)를 임대('15.1.1.~'15.12.31.)

□ 그동안 추진상황

- '15. 3.20 : 철도공사와 강원연탄에 원상회복 명령 (4.20한)
- '15. 5. 12 : 감사자료 요구(권익위원회 / 감사원)
 - ↳ 고충민원 종결 처리(권익위원회), 감사원 감사는 수감(결과 → 미통보)
- '15. 8. 12 : 공장등록 외 지역 완충녹지 점용 원상회복 알림(제1차)
 - ↳ 8.11일 현장확인 후 일부 임시 반출입로만 조치하여 추가 원상복구 요구
- '15. 8. 24 : 공장등록 외 지역 완충녹지 점용 원상회복 알림(제2차)
 - ↳ 8.20일 현장확인 후 공장등록면적외 지역(완충녹지)에 적치된 석탄 원상회복 조치
- '15. 9. 08 : 현장확인을 통하여 공장등록면적 확정
- '15. 9. 10 : 공장등록 외 지역 완충녹지 원상회복 완료(현장확인)

□ 향후추진계획

- 현장 점검 및 계도를 통하여 공장등록면적 외 지역에서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
- 불법행위 적발 시 즉시 원상회복 조치하도록 통보 등

□ 소송사건 현황

- 원 고 : 강원연탄 대표 윤영수(소송대리인 최호숙 변호사)
- 피 고 : 세종특별자치시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2483
- 항소취지
 1. 2015.07.02.이후 녹지점용이 만료된다는 통보 처분과 이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하는 처분을 모두 취소
 2.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그동안 추진상황

- '15. 6. 11 : 소장송달(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2483)
 - ↳ 행정처분취소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원상회복명령 효력 정지
- '15. 6. 22 :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새롬 이세영 변호사) 지정
- '15. 7. 08 : 답변서 제출
- '15. 9. 24 :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변론기일 문의
 - ↳ 사건접수가 많아 금년 내 변론기일 정하기 곤란하다함.

□ 소송관련 고문변호사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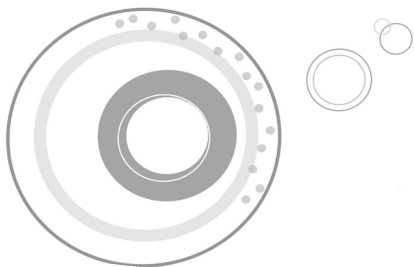
- 소송과 관련하여 강원연탄이 주장은(조례적용, 신뢰보호원칙 위배) 타당하지 않아 우리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나, 강원 연탄 측 변론에 따라 변동사항있어 승소를 확신하기는 어려움

□ 향후추진 계획

- 변론기일 확정을 위하여 소송대리인과 일정 관련 협의
- 재판진행 시 승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V. 관계전문가 제언



조치원읍 원도심 환경개선에 대한 소고

2015. 10. 07

임영택

1. 연구 배경

■ 원도심 재생의 필요성 대두

-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거 연기군 일원에 전략적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일명 행복도시라 불리는 건설지역이 일정정도 자리 잡게 되고, 그 결과 건설지역 외의 지역과의 각종 생활환경 및 삶의 질의 격차가 두드러지게 됨
- 이러한 주거 및 생활환경의 격차는 건설지역과 건지지역 외 지역 주민간의 골을 발생시키고 있음. 건설지역이든 건설 외 지역이든 모두 하나의 세종시로 통합과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간 갈등 상황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주거 및 생활환경이 열악한 기존 지역에 대한 재생이 시급하게 요구됨

■ 도시개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는 기성시가지의 정비보다는 도시외곽의 신규 도시개발을 추구해 옴에 따라 기존 시가지(기존 도심)의 쇠퇴를 경험하게 됨. 이는 주거 및 생활환경이 양호한 신규지역으로 기존지역의 시설 및 인구가 이전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게 됨
-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인 도심 쇠퇴의 방지와 외곽지역의 신규도시개발을 방지하기 하기 위해 개발의 신규수요를 기성시가지 재생을 통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도시개발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음

■ 강원연탄에 대한 민원과 환경개선 필요

- 원도심 재생의 필요성과 도시개발 정책 패러다임 변화 측면에서 세종시 또한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기존 조치원 지역에 있던 각종 공공시설이 건설지역으로 이전하여 원도심의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차원에 다양한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조치원 원도심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본 연구의 대상인 강원연탄의 경우, 공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 문제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뿐만 아니라 조치원 원도심의 재생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개선의 도모가 필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공장의 정비, 이전, 폐업 등 조속한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2 원도심 현황 및 관련 계획

1) 세종시에서 조치원의 위상

■ 조지원은 세종시 역사와 발전의 모태

-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 7월에 정식출범하게 됨
- 이러한 세종시의 출범은 과거의 연기군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연기군에서 조치원 읍은 1931년 처음 신설되어 조치원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당시 군민의 생활, 정치, 경제의 중심 거점공간으로 자리 잡았음

■ 건설지역에 대비되는 건설외지역의 상징

- 건설지역(일명 행복도시)는 2005년 5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단계별 건설이 시작되었음.
- 이후 행복도시는 첫마을이 건립되고, 중앙부처 및 각종 기관의 이전에 따라 급속도로 발전하여 10년전 약8만명을 상회하는 인구에서 2015년 현재 약20만에 가까운 도시로 성장함

[세종시 및 조치원을 인구 및 가구]



구 분	면적(㎡)	인구(명)	인구구성비	세대수	세대구성비
합 계	484,897,810	192,881	100.00%	74,191	100.00%
조치원읍	13,686,230	47,294	24.55%	18,687	25.19%
갑기면	43,908,544	2,665	1.38%	1,247	1.68%
연평면	29,326,708	3,988	2.08%	1,883	2.54%
무성면	27,796,966	6,883	3.57%	3,016	4.07%
금남면	78,137,912	8,835	5.10%	4,414	5.95%
장군면	53,232,200	5,767	3.00%	2,780	3.69%
연서면	54,591,180	7,679	4.00%	3,480	4.71%
연미면	62,442,044	7,091	3.69%	3,167	4.30%
연동면	57,751,804	4,327	2.25%	2,242	3.02%
수정면	16,476,547	3,039	1.58%	1,300	1.75%
한솔동	14,007,267	20,988	10.88%	8,874	11.95%
도담동	4,964,370	25,198	13.06%	9,857	13.28%
하동동	8,708,941	47,720	24.77%	15,507	20.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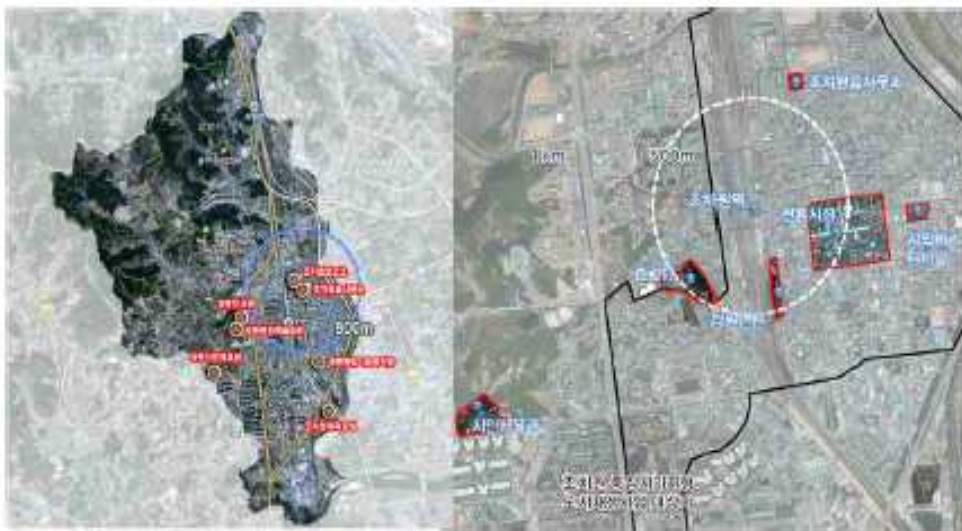
자료 : 2015. 7. 기준, 세종시 내부자료

- 2015년 현재 조치원은 세종시 인구의 약25%가 생활하는 중심 거점이며, 건설지역에 대비되는 건설외지역으로써 세종시 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적 지역임

2) 조치원 원도심 현황

- 조치원은 조치원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철도를 중심으로 동서로 분리되어 있는 실정으로 철도의 동쪽지역이 원도심으로 볼 수 있으며, 서쪽은 비교적 최근 개발된 지역으로 볼 수 있음
- 조치원역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강원연탄, 시외버스 터미널, 총렬탑, 조치원읍사무소 등의 주요 시설과 자원이 분포하고 있음

[조치원 및 원도심 현황]



3) 관련 계획 검토

■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 일자리 창출, 도시경쟁력 강화, 삶의 질 향상, 생활복지 구현
-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지역 정체성 기반 문화가치, 경관 회복

■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

- 1도심 1부도심 1지역중심 8지구중심 체계의 도시공간구조를 구상하고 있으며, 조치원읍 지역은 1부도심으로 위치되고 있으며, 역세권개발, 원도심 도시재생 등의 계획방향임
-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에서 조치원읍 기능설정은 부도심 기능으로 북부지역 도심기능 지원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하고 있음
-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부문에서 조치원읍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역사주변기능 강화, 철도역사 동서연계, 대학촌 활성화, 원도심 자족기능강화, 시교육청사 활용 등임



- 또한 계획에서는 세종시를 5개 생활권(북부생활권, 중부생활권, 동부생활권, 서부생활권, 남부생활권)으로 설정하고, 조치원읍이 포함된 중부생활권의 개발방향을 첨단지식기반의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심기능 강화로 중앙행정유관기관 유치, 조치원역세권개발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에서 중부생활권의 개발방향]

조치원을 관련 개발방향	중부생활권 구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의 유관기관 및 협회 등 적극 유치 • 조치원 역세권개발 및 서부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및 농축산물 유통단지 조성 등을 통한 상권 활성화 • 항공대대 이전 시 부지 활용방안 마련 • 경부선철도로 단절된 도시지역 연계방안 마련 	

■ 기타 조치원을 관련 개발 계획

- 2013년 세종시 Biz센터건립계획을 수립. 현재 공영버스터미널 주차장 부지 일원에 각급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세종시 산하기관, 회의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춘 Biz센터를 추진함
- 그 외에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계획과 기성시가지의 정비차원에서 토지이용 효율이 떨어지는 기존 주거지의 정비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활성화하여 도시구조 합리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는 상황임

원도실 일원 관련 계획

- 조치원 역세권 개발
- 충령탑 이전계획 추진(2018)
- 세종Biz센터 건립(2017)
-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구상
- 조치원읍사무소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계획
- 강원연탄 환경개선 추진
- 조치원 전통시장 육성 및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 미개발 도시계획시설 건설
- 동서 연계도로 추진 등



4) 원도심에서 강원연탄의 위치

■ 조치원역 강원연탄

- 강원연탄은 1988년 3월에 연탄제조업으로 등록하여 현 위치인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원리 141-32번지에서 2015년 현재까지 지역에 필요한 연탄을 생산 공급하고 있음(주요 공급 지역은 세종, 천안, 공주, 예산, 청주, 안성, 안양임)
- 강원연탄이 사용하는 연간 석탄사용량은 약45천톤으로 주로 강원도지역에서 철도를 이용하여 무연탄을 공급받고 있음

[강원연탄 시설 및 운영 현황]



연탄산업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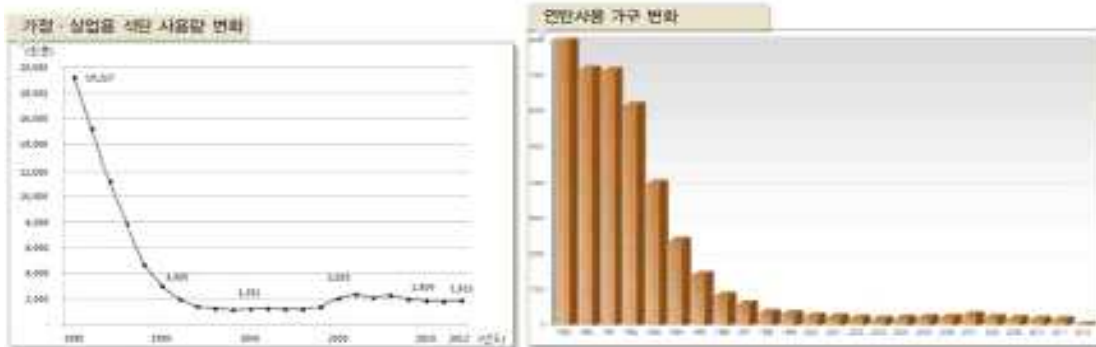
- 가정과 상업시설에서의 석탄사용량은 1990년 19,217천톤에서 2012년 1,333톤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가정과 상업시설의 석탄 사용 비율은 42.6%에서 22%로 하락함
- 우리나라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현황을 보면 2011년 기준으로 146천가구로 전체 17,380천가구 중 0.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1990년 기준 11,355천가구 중 7,130천가구로 63.2%의 점유율과 비교해 보면, 가정에서 연탄의 사용비율은 매우 미미함)

[가정·상업용 에너지 소비량 변화]

(단위 : 천toe, %)

구 분	석탄	석유	도시가스	전력	일에너지	합계
1990년	9,027	8,876	777	2,421	75	21,176
	42.6	41.9	3.7	11.4	0.4	100.0
2012년	832	5,363	13,797	16,049	1,711	37,752
	2.2	14.2	36.5	42.5	4.5	100.0

자료 : 2013년 에너지통계(한국석탄공사)를 기초로 작성



■ 대상지 및 주변 토지이용 현황

- 강원연탄은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며, 주변은 일반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철도시설)에 접하고 있음. 특히 강원연탄의 진입로는 조치원역광장과 연결되는 도로로 상가시설이 입지한 차량 통행이 빈번한 지역임
- 무엇보다도 강원연탄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 인접하므로 저탄 및 연탄 생산, 운반으로 발생하는 환경 관련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음
- 강원연탄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의 토지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강원연탄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크게 공장시설부지와 저탄장 부지로 현재 토지이용은 각각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임
- 현재 조치원역 강원연탄에서 저탄장(무연탄 저탄, 석탄운반장비-포클레인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완충녹지로 위해 환경으로부터 주거 및 상업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녹지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음

조치원을 원도실 환경개선에 관한 소고

[강원연탄 일원 토지이용 현황]



■ 행위제한 검토(연탄공장 입지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1항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따름
-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1항 4호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시하고 있음(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연탄공장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로 정비가 요구됨

■ 완충녹지의 점용 및 관리 사항 검토

-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임
- 녹지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시설로 완충녹지, 경관녹지 및 연결녹지로 구분하고 있음

- 조지원역 강원연탄이 저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의 경우 완충녹지로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시설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에서 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녹지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에 따르면 아래의 행위를 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에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음
 -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 토지의 형질변경, 축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흙과 돌의 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따라서 현재와 같은 완충녹지를 저탄장(공해유발)으로 활용하는 것은 완충녹지 본연의 목적(공해시설과 주거지역의 분리와 녹지보존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에 위배되는 행위임

1)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녹지의 설치·관리 기준)

-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녹지는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지의 기능 및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08.11.10, 2010.6.30, 2012.4.13, 2013.11.22, 2014.7.15>
1. 주로 공장·사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악취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재해 등의 발생시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해당지역의 풍향과 지형·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2. 주로 철도·고속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해당지역의 지형·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녹지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녹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인시설이 도로·하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과 접속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이 녹지기능의 용도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
 2. 「철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보호지구로 지정된 철도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중 방음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경우
 3.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의 경우
 4.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인접지역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3 강원연탄 진단 및 해결과제

■ 연탄공장 관련 다양한 민원 및 환경 문제 해결 요구

- 비산 먼지로 인한 주변상가, 주택 등에서 민원 발생(2011.03.09., 2012.01.25. 등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 강원연탄은 민원 발생 이후 여러 조치를 취하였으나 날씨 및 일기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한계와 같은 사업장 주변 청소 효과성이 검증되지 못한 방진망 보완 등의 해결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완전한 방진시설이 구축된 공장환경 구축 등을 통한 해당 공장 및 저탄장에 대한 구조적 문제해결을 모색해야 것으로 사료됨

[강원연탄 및 주변 환경]



조치원을 원도실 환경개선에 관한 소고

4 강원연탄 일원 환경개선 방안 모색

■ 강원연탄의 환경문제는 개별 사업장 문제와 더불어 도심재생차원의 접근 필요

- 강원연탄 개별 사업장의 환경문제 개선은 1. 방진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사업장 시설로 전면적 개선, 2. 원도심에서 환경에 관한 민원이 적은 교외지역으로 이전, 3. 정부 정책기조에 따른 사업장의 자연 구조조정²⁾이 있을 수 있음

[1안 검토 결과]

- 완전한 방진시설이 갖추어진 사업장 시설(동형 시설)을 구축함에 있어서는 일부 철로의 철거와 역사 진입시 시야 차단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철도공사측의 협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완충녹지의 저탄장 사용 자체가 법규에 위배되는 상황이고, 신규 구조물 건립을 위한 완충녹지 점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으로 불가능 한 상황임
- 동형 건축물로 공장시설을 정비할 경우(경량철골구조 건축공사 가정), 건축공사비만 약45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정부보조 없이는 매년 적자를 나타내는 강원연탄의 경영여건 상 불가능한 상황임

[2안 검토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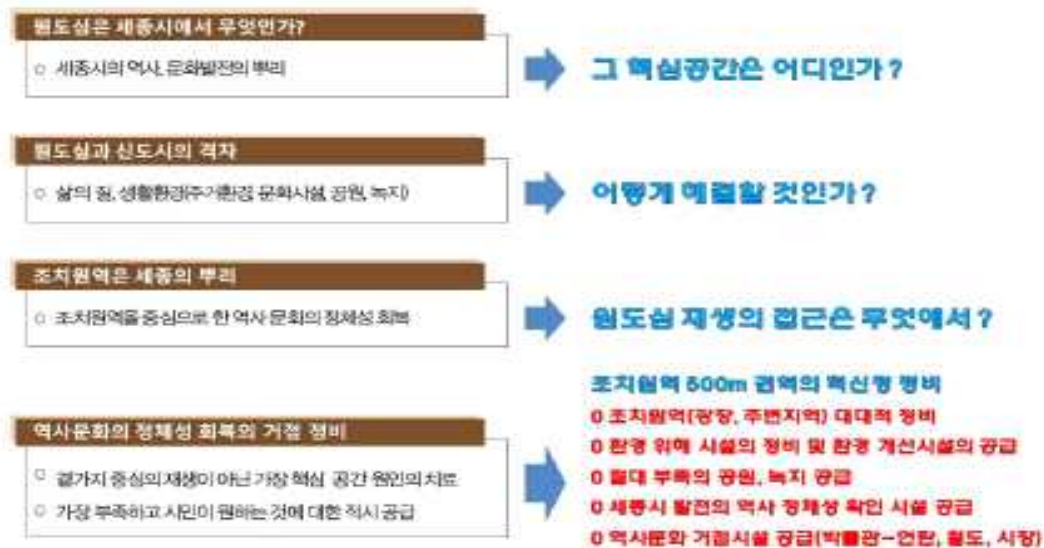
- 연탄공장의 실질 이전을 위한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전부지 지역의 주민과의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연탄공장 이전 사례에서 보면, 지역주민과의 갈등 문제가 심각한 실정임-단체장 고소, 고발, 주민단체 시위 등)
- 이전 완료시까지 장시간 소요(이전 부지 확보, 주민설득, 공장 시설, 진입도로 확보 등)로 현실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민원에 대한 대응이 어려움
- 세종시 지역내 이전 시 철도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한 무연탄 수송이 필요로 되며, 자동차 수송에 따른 새로운 국고 지원, 소음 및 분진 등 새로운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음

2) 산업자원부는 석탄산업법 제29조(석탄산업 안정을 위한 지원)에 근거하여 연탄제조비를 지원(271원/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탄제조 보조금 지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이는 2010년 G20 서울회의에서 제기된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 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3안 검토 결과]

- 연탄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2017년까지 한시적인 것으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경우, 강원연탄은 현실적으로 연탄을 생산,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임
- 2013년 강원연탄의 표준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국고보조금 약42억원을 포함하여 당기순이익이 약2억원으로 나타났음. 이는 보조금을 제외하면 수익을 낼 수 없는 사업으로 사실상 연탄공장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자연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됨
- 연탄공장의 폐업 이후에도 원도심의 환경이 적극적으로 개선(원도심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개별 사업장 중심의 환경개선은 한계가 분명하므로 원도심 재생차원의 환경개선이 요구됨. 세종시에서 조치된 원도심이 갖는 위상(세종시의 역사, 문화발전의 뿌리)과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 등을 감안하여 원도심 재생과 동시에 환경개선을 도모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세종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조치원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원도심의 삶의 환경을 고양할 수 있는 새롭게 출범한 세종시에서, 원도심에서 가장 부족한 문화시설과 공원 및 녹지의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재생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원도심 재생 및 환경개선 방향]



조치원을 원도심 환경개선에 관한 소고

■ 강원연탄 일원의 환경개선 방안

- 강원연탄 일원의 환경개선은 앞서 원도심의 재생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함을 언급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접근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강원연탄의 문제(각종 민원 발생, 녹지시설 무단 점용 등)를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으로 단기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원도심의 근본적 재생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요구됨

[단기적 접근 방안]

- 강원연탄과 원도심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필요
 - 지역주민, 행정기관, 강원연탄 등의 각자의 역할 수행
 - 협의체를 통한 지속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소통 강구
- 행정기관의 역할
 - 민·관·산 협의체 운영 지원
 - 법적 기준에 맞는 지도점검 및 행정제도
 - 원도심 환경개선을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일자리정책과, 청춘조치원과, 환경정책과, 도시과, 건축과)
- 강원연탄
 - 시민불편 사항에 대한 주기적 의견수렴
 - 시설 및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전향적 노력(시설투자 및 민·관·산 파트너십 구축 등)
- 지역주민
 - 민·관·산 협의체의 적극참여와 소통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 한국철도공사 대진·충남본부 등 관련 기관 방문 및 건의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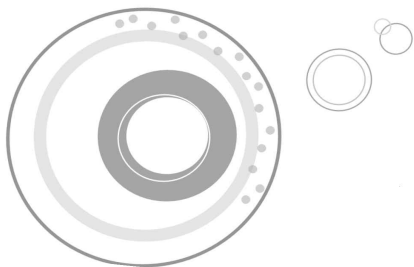
[중장기적 접근 방안]

- 원도심 재생을 위한 공익사업 추진 방향
 - 조치원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 지역 중심 정비
 - 세종시 차원의 정책적 추진 필요사업과 연계
 - 역사문화 기반시설 및 공원녹지 시설의 공급
- 세종시 정책 사업과 연계 추진
 - 기반시설 재정비, 역세권개발, 주택건설사업 등 원도심재생사업
 - 청춘프로젝트,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등 조치원을 관련 정책 추진 사업
 - 이러한 사업가운데 조치원의 특성(역사문화적 정체성을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을 감안하여 복합 추진

조치원을 원도심 환경개선에 관한 소고



VI. 타시도·공장운영 모범사례



VI. 타시도·공장운영 모범사례

1 공장운영 모범사례

구 분	현 황		저탄장 관리방법	기타사항
	부지면적	저탄장 면적		
대전 대덕구 소재 주)흥진에너지	19,000㎡	4,000평 정도	저탄장 포장설치	세륜시설

<저탄장 포장설치>



구 분	현 황		저탄장 관리방법	기타사항
	부지면적	저탄장 면적		
대전 대덕구 소재 주)세창글로벌	11,043㎡	3,000평 정도	저탄장 포장설치	세륜시설

<저탄장 포장설치>



구 분	현 황		저탄장 관리방법	기타사항
	부지면적	저탄장 면적		
충북 음성군 주)경동개발	27,079㎡	3,000평 정도	주변 방진망 설치, 저탄장내 포장설치	파레트(400장)로 랩에 포장판매

<파레트 연탄 랩포장 운반 >



<공장내 오수처리시설>



<공장내 세륜시설>



<친환경적 이송시설 외부전경>



<친환경적 이송시설 내부전경 및 저탄장 포장설치>



2 타시도 환경개선 사례 및 정부동향

〈타 지자체 환경개선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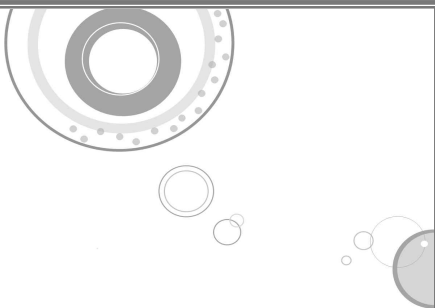
- 연탄공장 동일 시가지(도시지역) 지역 내 이전 성공사례 없음
- 여수시 제일연탄, 합동연탄 2012 여수세계박람회 사업시 보상 폐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LH공사 보상
- 다만, 상주제일연탄은 타 시군 이전 성공 ('06. 12, 김천 → 상주시)
 - 주민 반대시위, 단체장 고소·고발 등 진통이 따름
- 강원 고성군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조건부 허가 ('14.1.), 주민 반발 지속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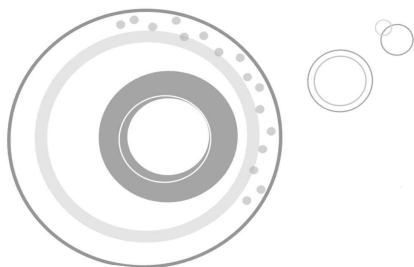
대도시 내 주변에는 이전 및 신규설립사례는 없으며, 현대화 및 친환경 건립 등 운영사례도 없고, 기피시설로 부지마련 어려움

〈정부 동향/산자부〉

- 연탄제조업자에 대한 지원
 - 근거 : 석탄산업법 제29조(석탄산업 안정을 위한 지원)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 연탄 제조비 지원 : 271원 / 장당
- 연탄제조 보조금 단계적 폐지
 - G20서울회의(2010년) :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연탄가격 현실화를 통한 보조금 폐지



Ⅶ.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의원연구모임」 정책제언



VII.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 최근 연탄산업 여건 및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개선 필요성

○ 최근 연탄산업 현황 및 정부지원 현황

-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연탄제조업체는 전국에 45개소가 있으며, 지역별로는 경북과 강원지역이 가장 많은 연탄제조업체를 보유하고 있고, 충청권에는 세종시는 강원연탄공장 1개소, 인접한 대전 광역시에 3개소, 충남 예산지역에 1개소가 있음.
- 2013년 기준 강원연탄의 연간 생산량은 약 1,400만장으로 9월부터 2월까지가 성수기이며, 강원연탄공장에서 연탄을 공급하는 지역은 충남 천안, 공주, 예산, 충북 청주, 청원, 경기 안성, 안양일원임
- 강원연탄공장에서 우리 세종시에 공급하는 연탄량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세종시에서 연탄을 보조하는 기초생활가구는 300가구 정도일 것으로 파악됨.
- 2013년 통계에 따르면, 연탄을 사용하는 비율이 1990년 42.6%에서 2012년 2.2.%로 급격히 감소하는 등 연탄산업이 점차 사양산업으로 쇠퇴하고 있는 추세임.
- 2014년 정부는 저소득층의 연탄수요에 대응하여 연탄제조업소에 안정지원금 지원사업(한국광해관리공단, 연탄제조업소 연탄제조비, 연탄수송업자 수송비, 무연탄 자동차 수송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정부의 연탄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차액분에 대한 쿠폰지급)을 추진하고 있음.

※ 강원연탄 정부지원금, 최근 3년 평균 약 38억원 정도 / 저소득층 연탄지원, 1가구당 300장(16만9천원 정도)

○ 강원연탄에 대한 지속적 민원발생

- 1988년 강원연탄공장이 들어서면서 수십년 동안 우리 조치원 원리·정리·남리 및 인근 상가 주민들은 강원연탄공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더운 여름에도 창문을 마음놓고 열어 놓을 수도 없고, 빨래를 건조대에 널수도 없으며, 도로 및 하천오염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도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세종시 등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강원연탄공장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연탄제조업으로 정식 등록한 업체이며, 특별한 환경문제가 없음에도 일부주민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신도시와 읍·면지역간 개발격차로 인한 소외감 팽배

- 특히, 세종시 출범 이후 3년 만에 인구가 두배 이상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도시지역은 본격적인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맞아 각종 생활 편의시설이 속속 들어서는 등 상전벽해의 도시이자,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고 있다.
- 반면, 인구와 개발사업이 신도지역에 편중되면서 조치원읍을 비롯한 기타 면지역은 상대적 소외감으로 갈등과 반목이 팽배하고 있다.
- 이에, 세종시는 청춘조치원프로젝트를 통한 조치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도심재생사업 및 문화복지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조치원읍을 책임읍으로 승격시키고, 세종시의 경제중심축으로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
- 그러나, 수십년동안 주민에게 정서적·물질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강원연탄공장이 조치원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음에 따라 지역발전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중·단기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강원연탄공장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 정 책 제 언

< 정부 차원 >

- 석탄산업은 우리나라 연간발전량의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에너지 자원으로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연탄제조업은 1980년대 이후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연료소비 패턴의 변화와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으로 사양산업의 길을 걷고 있다.
- 이에 따라 정부의 연탄제조업 안정지원자금과 저소득층에 국한한 연탄보조금 지원은 효과가 미미하고, 연탄공장 주변 주민들의 분진, 소음 등 환경피해는 등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제 정부는 연탄제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설비를 갖춘 연탄공장을 가동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연탄업체 및 저소득층의 보조금 지원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 市 차원 >

- (운영전반) 강원연탄공장의 분야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등과 저탄장 대부종료 및 사후관리 협조
- (환경분야) 세륜시설, 이송시설 및 저탄장 주변 비산먼지 발생 예방 등 환경개선 종합대책 마련
- (건축분야) 제2종 일반주거지역(1976년 지정)에 특례 적용 가능여부 검토 ※ 강원연탄공장, 1962년 준공(공장 및 주택, 창고)
- (녹지분야) 등록된 저탄장 포함 불법점용 완충녹지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 적극 이행
- (도시재생분야) 강원연탄공장 부지활용방안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추진

< 개선방안 >

① 세종시

○ 강원연탄공장 운영개선 민·관·산 협의체 구성운영

- 세종시, 강원연탄공장, 지역주민 등 해결방안 마련 및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
- 민·관·산 협의체 회의 정례화 및 운영지원(세종시)

○ 행정지도 및 소송대응 철저

- 저탄장 등록면적(795㎡)의 정확한 위치 재조사 및 준수 사용 등 조치
※ 등록면적(795㎡)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설치된 표시봉 교체)
- 공장등록된 저탄장 면적(795㎡)에 대해서만 임대하도록 관계기관에 공문발송 조치(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 석탄운반, 야적, 제조과정 등 환경기준 준수실태 지도·단속
- 저탄장(795㎡) 경계선에 맞게 방진벽 설치 및 덮개처리 등 조치
- '완충녹지 원상복구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적극 대응

○ 연탄공장 주변지역의 도시정비구역으로 재개발 추진

- 대상지역 : 완충녹지, 주거지역, 철도부지
- 조성내용 :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통한 주차장, 공원, 박물관, 도서관 등 주민편의 공간 조성 등 부지활용방안 모색
※ 부지매입 등 예산 확보 추진(철도부지는 한국철도공사와 협의)

② 강원연탄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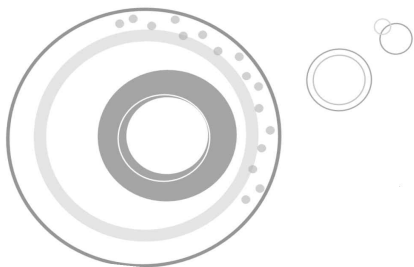
- ▷ 민·관·산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과 대화로 문제해결
- ▷ 주민피해예방을 위해 환경개선을 위한 전향적 노력

③ 지역주민

- ▷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등 관계기관 방문 주민건의활동 적극 전개
- ▷ 민·관·산 협의체 적극 참여를 통한 문제해결 및 상생발전 방안 강구



VIII. 부 록



보도자료 / 뉴시스, 2015년 02월 13일 (금)

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조기폐업방안 정책토론회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주변지역 발전방안 논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대표 서금택 의원)에서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의회 소회의실 3층에서 조치원을 관내 숙원사업인 강원연탄공장 조기폐업방안을 강구하고 이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세종시의회

이번 연구모임에서는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원을 비롯해서 같은 회원인 박영송·이태환 의원이 자리를 함께하였고, 외부인사로 유진성 우송전문대 교수, 장교진 회원(시민대표), 그리고 집행부에서 곽점홍 세종시 일자리정책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했다. 지난 1월 27일 세종시의회 연구모임 심의위원회에서 등록 의결된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의원연구모임 대표인 서금택 의원은 “첫 모임인만큼 회원 상호간 친목을 다지고, 앞으로 10개월여 동안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마련을 위한 향후 활동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주변지역 발전방안이 함께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개원 후 첫 의원연구모임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시민이 참여하고 의원들의 창의적 연구와 토론 등을 통해 연구하고 일하는 의회로 시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는 한편, 그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며 광역의 회로서의 위상을 하나하나 정립해 나가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근 주민들 분진 민원 빗발 대책은

세종시 조치원에 자리 잡은 강원연탄에 대한 지역민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가 인체가 유해하다는 사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연탄공장에서 배출되는 분진은 더욱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재 주목 받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강원연탄은 사유 재산인 만큼 관련 지자체가 강제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묘안 찾기에 나서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22일 강원연탄 연구모임에 따르면 조치원을 원리에 위치한 강원연탄 인근은 주거밀집 지역으로 수년간 인근 지역민들의 분진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은 곳이다. 지역민들은 △강원연탄 폐쇄 △타지역 이전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세종시는 사유 재산이 포함된 관계로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강원연탄의 사무실과 주차장 등을 제외한 저탄장의 부지는 철도공사 소유로 임대사용하는 중이다.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영업장 폐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타지역 이전시 비용과 이전지역에 대한 중복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설 보완 문제도 주거용도를 고려해야 한다. 강원연탄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공장)과 자연녹지지역(완충녹지에 저탄장)이다.

이에 강원연탄 모임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 서금택 대표의원, 박영송 의원, 이태환 의원을 중심으로 지자체 담당자 및 시민들로 구성 된 강원연탄모임은 지난 2월 발족한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연구모임 추진일정을 보면 3-4월 연탄공장 운영상황 및 주민피해 실태 조사, 10-11월 토론회 개최 및 보고서 발간 등으로 진행된다. 지역민들은 합리적인 결과 도출에 기대를 걸고 있다.

강원연탄 인근의 한 주민은 "공장 일대 지역은 바람이 불면 분진이 매우 쌓여 건강에도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조치원 강원연탄공장 이전 대책 논의



13일 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은 의회 소회의실에서 서금택·박영송·이태환 의원과 외부인사인 유진성 우송전문대 교수, 장교진 회원(시민대표), 곽점홍 세종시 일자리정책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연탄공장 조기폐업방안과 이전 대책 마련을 위한 제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세종시의회 ‘조치원 연탄공장 대책’ 연구모임 첫 회의, 13일 1차 정책토론회 개최. 주민불편 해소방안 모색 본격화



▲ 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대표 서금택 의원)이 13일 오전, 의회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대표 서금택 의원)이 13일 오전, 의회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조치원읍민의 숙원사업인 강원연탄공장 조기폐업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시의원으로는 서금택·박영송·이태환의원이 자리를 함께 했고, 외부인사로 유진성 우송전문대 교수, 장교진 회원(시민대표)등이 참석했다. 서금택 의원은 “이번 회의가 앞으로 10개월여 동안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마련을 위한 향후 활동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됐다” 며 “생활환경 개선과 주변지역 발전방안이 함께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편, 의원연구모임에서 모아진 다양한 의견들은 시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 현장방문

'수범자치단체 방문.. 모범 사례 연구 분석 공장운영개선 및 이전방안 수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치원읍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대표 서금택 의원)이 20일 대전시 대덕구 ㈜홍진에너지와(주)세창글로벌·충북 음성군 ㈜경동개발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세종시와 유사 여건을 가진 인근 시도의 연탄공장을 방문해 공장 분진 등 환경피해 저감을 위한 운영 실태와 주민갈등 해결사례 등을 조사·분석해 연구기초자료에 활용하고자 실시됐다.

현장방문을 마친 서금택 의원 (연구모임 대표)은 “오랜 기간 동안 조치원읍 도심 중앙에 위치한 연탄공장의 연탄 분진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건강을 위협받는 등 쾌적한 주거권 침해는 물론, 도시개발에 따른 상대적 소외감과 지가하락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간접적으로 받아왔다”며 “이번 이들 세 개 지역의 연탄 공장의 모범적인 운영사례를 현장방문과 벤치마킹을 통해 공장운영개선 및 이전 방안수립 등 폭넓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조치원읍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은 지난 2월 23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올해 말까지 약 10개월 동안 활동할 계획으로 조치원읍 연탄공장으로 인한 주민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원 도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변지역 개발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 세종시의회 조치원읍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 수범자치단체 현장방문. ©뉴스클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치원읍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대표 서금택 의원)은 20일 하루 대전시 대덕구 (주)홍진에너지, (주)세창글로벌과 충북 음성군 (주)경동개발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우리시와 유사 여건을 가진 인근 시도의 연탄공장을 방문하여 공장 분진 등 환경피해 저감을 위한 운영실태와 주민갈등 해결사례 등을 조사·분석하여 연구기초자료에 활용하고자 실시했다.

조치원읍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 대표 서금택 의원은 현장방문을 마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조치원읍 도심 중앙에 위치한 연탄공장의 연탄 분진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건강을 위협받는 등 쾌적한 주거권 침해는 물론, 도시개발에 따른 상대적 소외감과 지가하락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간접적으로 받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들 세 개 지역의 연탄 공장의 모범적인 운영사례를 견학하는 등 벤치마킹을 통해 공장운영개선 및 이전 방안수립 등을 위한 폭넓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 조치원읍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은 지난 2월 23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올해 말까지 약 10개월 동안 활동할 계획이며, 조치원읍 연탄공장으로 인한 주민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원도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변지역 개발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조치원읍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 수범자치단체 현장방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치원읍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대표 서금택 의원)은 20일 하루 대전시 대덕구 (주)흥진에너지, (주)세창글로벌과 충북 음성군 (주)경동개발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우리시와 유사 여건을 가진 인근 시도의 연탄공장을 방문하여 공장 분진 등 환경피해 저감을 위한 운영실태와 주민갈등 해결사례 등을 조사·분석하여 연구초자료에 활용하고자 실시했다.

조치원읍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 대표 서금택 의원은 현장방문을 마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조치원읍 도심 중앙에 위치한 연탄공장의 연탄 분진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건강을 위협받는 등 쾌적한 주거권 침해는 물론, 도시개발에 따른 상대적 소외감과 지가하락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간접적으로 받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들 세 개 지역의 연탄 공장의 모범적인 운영사례를 견학하는 등 벤치마킹을 통해 공장운영개선 및 이전 방안수립 등을 위한 폭넓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 조치원읍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은 지난 2월 23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올해 말까지 약 10개월 동안 활동할 계획이며, 조치원읍 연탄공장으로 인한 주민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원도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변지역 개발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충북 음성 연탄공장 현장방문



11일 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대표 서금택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와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충북 음성의 연탄 공장을 찾아 강원연탄 공장 운영대책과 관련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모색했다.

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대책모임, 2차 현장방문



▲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이 11일 충북 음성 연탄공장에서 제2차 현장방문 활동을 하고 있다.

11일 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대표 서금택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와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충북 음성의 연탄 공장을 찾아 강원연탄 공장 운영대책과 관련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모색했다.

세종시의회 조치원읍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 수범자치단체 현장방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치원읍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대표 서금택 의원)은 20일 하루 대전시 대덕구 (주)흥진에너지, (주)세창글로벌과 충북 음성군 (주)경동개발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우리시와 유사 여건을 가진 인근 시도의 연탄공장을 방문하여 공장 분진 등 환경피해 저감을 위한 운영실태와 주민갈등 해결사례 등을 조사·분석하여 연구기초자료에 활용하고자 실시했다.

조치원읍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 대표 서금택 의원은 현장방문을 마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조치원읍 도심 중앙에 위치한 연탄공장의 연탄 분진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건강을 위협받는 등 쾌적한 주거권 침해는 물론, 도시개발에 따른 상대적 소외감과 지가하락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간접적으로 받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들 세 개 지역의 연탄 공장의 모범적인 운영사례를 견학하는 등 벤치마킹을 통해 공장운영개선 및 이전 방안수립 등을 위한 폭넓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 조치원읍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은 지난 2월 23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올해 말까지 약 10개월 동안 활동할 계획이며, 조치원읍 연탄공장으로 인한 주민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원도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변지역 개발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강원연탄공장 주변 환경개선 움직임 '활기'

연구모임 제4차 회의 개최... 성과 분석 및 향후 계획 토론

오는 11월 연구보고서 발간... 실효성있는 효과 기대

기사입력 : 2015-07-22 16:11



▲ 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대표 서금택 의원, 사진 좌측부터 4번째) 위원들이 22일 오전 조치원읍 의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마친 뒤 문제해결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제공=시의회)

조치원읍 강원연탄공장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시의회 주도로 활기를 띠고 있다.

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대표 서금택 의원)은 22일 오전 조치원읍 의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갖고, 그동안 운영성과 분석과 비산먼지 발생 예방 등 현안 토론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선진 우수사례 견학을 통해 확인한 방진막 설치 및 저탄장 덮개 처리 등의 도입 권고는 하나의 성과로 평가했다.

연구모임은 오는 9월 제5차 회의를 열고, 개선방안 발굴과 관계 전문가 자문,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11월 중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서금택 대표는 “지난달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를 방문, 임대한 저탄장부지(철도부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주민불편사항을 건의하는 등 관계 기관과 협력방안을 이끌어냈다”며 “향후 강원연탄공장의 실효성있는 환경개선 대책 마련을 유도함으로써, 조치

원을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대표 서금택 의원)은 22일 11시, 제4차 회의를 갖고 그동안 운영성과 분석과 비산먼지 발생 예방을 위한 현안과제 토의 및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연구모임 운영성과는 방진막 설치 및 저탄장 덮개처리 등 선진우수사례를 견학하여 강원연탄공장에 대해서도 도입하도록 시설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강원연탄공장 연구모임 대표 서금택 의원은“6월에는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를 방문하여 임대한 저탄장부지(철도부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주민불편사항을 건의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방안을 이끌어 냈다”며“앞으로 강원연탄공장의 실효성 있는 환경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조치원읍민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은 오는 9월 중 한차례 연구모임을 더 갖고,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11월 중에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중부뉴스통신
JUNGBU NEWS AGENCY

전국 사람 오피니언 포토·영상 커뮤니티 보도자료

경제 | 사회 | 문화 | 교육 | Biz & Tax | 2015광주U대회 | 2018광항동계올림픽

전국
세종

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제4차 회의 개최

운영성과 분석 및 현안 과제토의를 통해 환경개선방안 적극 발굴

[세종=중부뉴스통신] 김만석 기자 | desk@jungbunews.com

승인 2015.07.22 16:02:21



▲ 강원연탄공장 연구모임 대표 서금택 의원은“6월에는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를 방문하여 임대한 저탄장부지(철도부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주민불편사항을 건의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방안을 이끌어 냈다”며“앞으로 강원연탄공장의 실효성 있는 환경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조치원읍민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회(의장 임상전)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대표 서금택 의원)은 22일 11시, 제4차 회의를 갖고 그동안 운영성과 분석과 비산먼지 발생 예방을 위한 현안과제 토의 및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연구모임 운영성과는 방진막 설치 및 저탄장 덮개처리 등 선진우수사례를 견학하여 강원연탄공장에 대해서도 도입하도록 시설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강원연탄공장 연구모임 대표 서금택 의원은“6월에는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를 방문하여 임대한 저탄장부지(철도부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주민불편사항을 건의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방안을 이끌어 냈다”며“앞으로 강원연탄공장의 실효성 있는 환경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조치원읍민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은 오는 9월 중 한차례 연구모임을 더 갖고,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11월 중에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홈 > 뉴스 > 의회소식

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연구모임 회의 개최

박홍희 기자 khh@icouncil.kr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대표 서금택 의원)은 22일 제4차 회의를 갖고 그동안 운영성과 분석과 비산먼지 발생 예방을 위한 현안 과제 토의 및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연구모임은 방진막 설치 및 저탄장 덮개처리 등 선진우수사례를 견학하여 강원연탄공장에 대해서도 도입하도록 시설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서금택 대표는 “6월에는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를 방문하여 임대한 저탄장부지(철도부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주민불편사항을 건의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방안을 이끌어 냈다”며 “앞으로 강원연탄공장의 실효성 있는 환경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조치원읍민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은 오는 9월 중 한차례 연구모임을 더 갖고,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11월 중에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세종시의회(의장 임상전)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대표 서금택 의원)은 22일 11시, 제4차 회의를 갖고 그동안 운영성과 분석과 비산먼지 발생 예방을 위한 현안과 제 토의 및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연구모임 운영성과는 방진막 설치 및 저탄장 덮개처리 등 선진우수사례를 견학 하여 강원연탄공장에 대해서도 도입하도록 시설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강원연탄공장 연구모임 대표 서금택 의원은“6월에는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를 방문하여 임대한 저탄장부지(철도부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주민불편사항을 건의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방안을 이끌어 냈다”며“앞으로 강원연탄공장의 실효성 있는 환경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조치원읍민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은 오는 9월 중 한차례 연구모임을 더 갖고,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11월 중에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대전시

세종시

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 제4차 회의 개최

기사입력: 2015/07/22 [15:09] | 최종편집: © 뉴스충청인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대표 서금택 의원)은 22일 오전 11시, 제4차 회의를 갖고 그동안 운영성과 분석과 비산먼지 발생 예방을 위한 현안과제 토의 및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연구모임 운영성과는 방진막 설치 및 저탄장 덮개처리 등 선진우수사례를 견학하여 강원연탄공장에 대해서도 도입하도록 시설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강원연탄공장 연구모임 대표 서금택 의원은 “6월에는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를 방문하여 임대한 저탄장부지(철도부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주민불편사항을 건의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방안을 이끌어 냈다”며 “앞으로 강원연탄공장의 실효성 있는 환경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조치원읍민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은 오는 9월 중 한차례 연구모임을 더 갖고,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11월 중에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27일 오전 조치원읍 의회에서 열린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 제5차 회의 모습.(제공=시의회)

세종시 조치원읍 강원연탄공장 문제점 개선 논의가 가속도를 내고 있다. 세종시의회 (의장 임상전)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대표 서금택 의원)은 27일 오전 조치원읍 의회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시 집행부는 이날 ▲도심재생 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주거환경개선 ▲완충녹지 불법 점용에 대한 원상복구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 종합대책 등 부서별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보고안 및 지난 4차 회의 등을 토대로 문제점 토론 및 발전방안 모색에 나섰다. 다음 달 중 구체적인 환경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 전문가 초청 토론을 갖는 한편, 오는 11월 중 연구보고서 발간에 이어 12월 중 본회의 제출 순서로 문제 해결을 도모할 계획이다.

서금택 대표는 “단기적으로 친환경 공장시설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조치원역 주변을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도시재생 기반시설로 재창조해야한다”며 “조치원읍이 대한민국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관문 허브로 자리잡아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소식

세종

오피니언

라이프

late. 2015.10.13 화 15:42

미각기행

가볼만한 곳

모임

세상이야기

마음에 담는 글

교

보도자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 제5차 회의 개최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세종시의회



승인 2015.08.27 15:44: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대표 서금택의원)」은 27일 11시,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도심재생활성화사업과 연계한 주거환경개선, 완충녹지 불법점용에 대한 원상복구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종합대책 등에 대한 부서별 추진상황을 청취하였고, 지난 4차회의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토론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및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서금택 대표의원은 “단기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공장시설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조치원역 주변을 쾌적한 주거환경 기능을 가진 도시재생 기반시설로 재창조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의 관문허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은 10월중 구체적인 환경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전문가 초청 토론을 거쳐 오는 11월중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12월중 본 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

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 제5차 회의 열어

문제점 진단·개선방안 토론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정완영 기자 | waneyoung@dailycc.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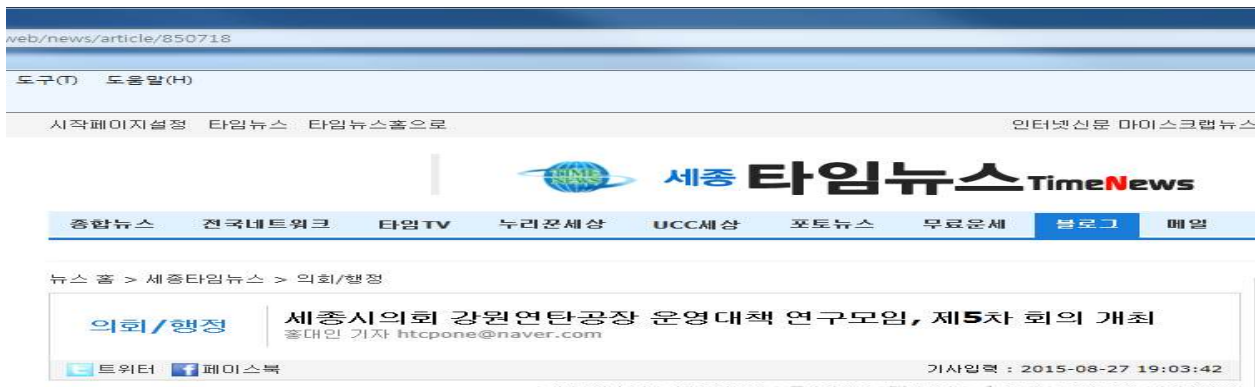
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대표 서금택의원)은 27일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도심재생활성화사업과 연계한 주거환경개선, 완충녹지 불법점용에 대한 원상복구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종합대책 등에 대한 부서별 추진상황을 들었다.

또, 지난 4차회의 때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토론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및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서금택 모임 대표 의원은 “단기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공장시설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조치원역 주변을 쾌적한 주거환경 기능을 가진 도시재생 기반시설로 재창조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의 관문허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은 10월 중 구체적인 환경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전문가 초청 토론을 거쳐 오는 11월에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12월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세종=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의장 임상전)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대표 서금택 의원)」은 27일 11시,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도심재생활성화사업과 연계한 주거환경개선, 완충녹지 불법점용에 대한 원상복구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종합대책 등에 대한 부서별 추진상황을 청취하였고, 지난 4차 회의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토론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및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서금택 대표의원은 “단기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공장시설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조치원역 주변을 쾌적한 주거환경 기능을 가진 도시재생 기반시설로 재창조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의 관문히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고 밝혔다.

앞으로,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은 10월중 구체적인 환경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전문가 초청 토론을 거쳐 오는 11월중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12월중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의장 임상전)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대표 서금택의



원)’은 8월 27일 오전 11시,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도심재생활성화사업과 연계한 주거환경개선, 완충녹지 불법점용에 대한 원상복구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종합대책 등에 대한 부서별 추진상황을 청취하였고, 지난 4차회의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토론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및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서금택 대표의원은 “단기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공장시설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조치원역 주변을 쾌적한 주거환경 기능을 가진 도시재생 기반시설로 재창조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의 관문허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은 10월중 구체적인 환경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전문가 초청 토론을 거쳐 오는 11월중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12월중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회(의장 임상전)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대표 서금택의원)」은 27일 11시,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사진)



"강원연탄공장,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와 연계해야"

2015.10.08 06:46 입력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서금택 대표의원)’은 7일 오전 10시 의회 3층 회의실에서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개선방안 마련 전문가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금택 대표의원의 인사를 시작으로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임영택 박사의 과제발표에 이어 세종시의회 박영송·이태환의원, 장교진 시민대표, 세종·충북 환경보전협회 정인구 부장 및 집행부 관련 부서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연구모임은 그동안 강원연탄공장 환경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의원, 관련 전문가, 시민 등과 함께 인근 연탄공장을 방문해 환경개선 우수사례를 발굴·도입할 것을 건의했으며 감사원,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소음피해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민원해결 및 대책마련을 수차례 촉구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임영택 박사는 환경개선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원도심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산 협의체 구성·운영 및 강원연탄과 지역주민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했으며 장기적으로는 2기 세종시 핵심정책인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와 2030 세종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서금택 의원은 “강원연탄공장 운영 개선은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와 불가분의 관계이며 조치원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이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강원연탄공장도 시민의 건강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하며 시민들께서도 반목을 넘어 대화를 통해 현 상황을 풀어 나간다는 자세로 세종시의회의 노력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은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 정책사업과의 연계 및 세부적으로는 세륜시설 보강, 야적장 및 작업장 주변 시설보수 등 강원연탄공장의 환경개선을 포함한 정책대안을 12월께 제시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토론회 개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와 연계해야

승인 2015년 10월 08일 (목) 06:32:30

구운서 기자 ☞ koows11@hanmail.net



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 토론회 현장.

세종시의회(의장 임상전)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서금택 대표의원)은 7일 의회 3층 회의실에서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개선방안 마련 전문가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금택 대표의원의 인사를 시작으로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임영택 박사의 과제발표에 이어 세종시의회 박영송·이태환의원, 장교진 시민대표, 세종·충북 환경보전협회 정인구 부장 및 집행부 관련 부서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연구모임은 그동안 강원연탄공장 환경개선방안을 모색키 위해 시의원, 관련 전문가, 시민 등과 함께 인근 연탄공장을 방문해 환경개선 우수사례를 발굴·도입할 것을 건의했으며 감사원,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소음피해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민원해결 및 대책마련을 수차례 촉구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임영택 박사는 환경개선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원도심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산 협의체 구성·운영 및 강원연탄과 지역주민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 2기 세종시 핵심정책인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와 2030 세종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서금택 의원은“강원연탄공장 운영 개선은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와 불가분의 관계이며 조치원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이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강원연탄공장도 시민의 건강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하며, 시민들께서도 반목을 넘어 대화를 통해 현 상황을 풀어 나간다는 자세로 세종시의회에 노력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은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 정책사업과의 연계 및 세부적으로는 세륜시설 보강, 야적장 및 작업장 주변 시설보수 등 강원연탄공장의 환경개선을 포함한 정책대안을 12월께 제시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토론회 개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와 연계해야



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 토론회 현장.

충청인터넷신문] 세종시의회(의장 임상전)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서금택 대표의원)은 7일 의회 3층 회의실에서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개선방안 마련 전문가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금택 대표의원의 인사를 시작으로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임영택 박사의 과제발표에 이어 세종시의회 박영송·이태환의원, 장교진 시민대표, 세종·충북 환경보전협회 정인구 부장 및 집행부 관련 부서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연구모임은 그동안 강원연탄공장 환경개선방안을 모색키 위해 시의원, 관련 전문가, 시민 등과 함께 인근 연탄공장을 방문해 환경개선 우수사례를 발굴·도입할 것을 건의했으며 감사원,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소음피해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민원해결 및 대책마련을 수차례 촉구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임영택 박사는 환경개선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원도심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산 협의체 구성·운영 및 강원연탄과 지역주민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 2기 세종시 핵심정책인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와 2030 세종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서금택 의원은“강원연탄공장 운영 개선은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와 불가분의 관계이며 조치원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이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강원연탄공장도 시민의 건강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하며, 시민들께서도 반목을 넘어 대화를 통해 현 상황을 풀어 나간다는 자세로 세종시의회의 노력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은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 정책사업과의 연계 및 세부적으로는 세륜시설 보강, 야적장 및 작업장 주변 시설보수 등 강원연탄공장의 환경개선을 포함한 정책대안을 12월께 제시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 토론회 개최

김지은 기자 | 기사입력 2015/10/07 [19: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회『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서금택 대표의원)』은 7일 오전 10시 의회 3층 회의실에서「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개선방안 마련 전문가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금택 대표의원의 인사를 시작으로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임영택 박사의 과제발표에 이어 세종시의회 박영송·이태환의원, 장교진 시민대표, 세종·충북 환경보전협회 정인구 부장 및 집행부 관련 부서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연구모임은 그동안 강원연탄공장 환경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의원, 관련 전문가, 시민 등과 함께 인근 연탄공장을 방문해 환경개선 우수사례를 발굴·도입할 것을 건의했으며 감사원,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소음피해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민원해결 및 대책마련을 수차례 촉구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임영택 박사는 환경개선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원도심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산 협의체 구성·운영 및 강원연탄과 지역주민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2기 세종시 핵심정책인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와 2030 세종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서금택 의원은 “강원연탄공장 운영 개선은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와 불가분의 관계이며 조치원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이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강원연탄공장도 시민의 건강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하며, 시민들께서도 반목을 넘어 대화를 통해 현 상황을 풀어 나간다는 자세로 세종시의회의 노력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은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 정책사업과의 연계 및 세부적으로는 세륜시설 보강, 야적장 및 작업장 주변 시설보수 등 강원연탄공장의 환경개선을 포함한 정책대안을 12월께 제시할 예정이다.

5대 정책 방향

교수·학습 중심 학교

세종의소리

www.sjsori.com

소식

세종

오피니언

라이프

부동산

update, 2015.10.13 화 15:37

칼럼

게시판

소식 정치

"강원연탄공장, 청춘조치원 사업과 연계해야"

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우종윤 기자 | man-pa@hanmail.net

승인 2015.10.07 17:43:50

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은 7일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개선방안 마련 전문가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서금택 대표의원)'은 7일 오전 10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개선방안 마련 전문가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금택 대표의원의 인사를 시작으로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임영택 박사의 과제발표에 이어 세종시의회 박영송·이태환의원, 장교진 시민대표, 세종·충북 환경보전협회 정인구 부장 및 집행부 관련 부서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연구모임은 그동안 강원연탄공장 환경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의원, 관련 전문가, 시민 등과 함께 인근 연탄공장을 방문해 환경개선 우수사례를 발굴·도입할 것을 건의했으며 감사원,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소음피해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민원해결 및 대책마련을 수차례 촉구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임영택 박사는 환경개선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원도심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산 협의체 구성·운영 및 강원연탄과 지역주민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임 박사는 장기적으로는 2기 세종시 핵심정책인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와 2030 세종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서금택 의원은 “강원연탄공장 운영 개선은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와 불가분의 관계이며 조치원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이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강원연탄공장도 시민의 건강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하며, 시민들께서도 반목을 넘어 대화를 통해 현 상황을 풀어 나간다는 자세로 세종시의회의 노력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은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 정책사업과의 연계 및 세부적으로는 세륜시설 보강, 야적장 및 작업장 주변 시설보수 등 강원연탄공장의 환경개선을 포함한 정책대안을 12월께 제시할 예정이다.

전체보기 (1657)

목록열기

[기고] 서금택 세종시 의회 운영위원장, "소통과 공감으로 해결해야" [세종의소리]

소식
2015.04.27. 11:08

<http://blog.naver.com/iota8903/220342670071> **복사**

전용뷰어 보기

1960~80년대 석탄산업은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원동력이었다. 그 당시 연탄은 가정의 난방용도로 사용하는 가장 큰 에너지원으로 40대를 넘긴 세대들은 연탄의 추억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에너지원은 정유, 발전, 도시가스 등으로 대체되었다.

더불어 국내 석탄산업은 대다수 구조조정되어 250여개에 달하던 연탄 제조공장이 지금은 50여개로 줄어들었다. 2000년대 들어 연탄제조 및 배달업은 성장의 한계에 이른 사양산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또한, 연탄은 국내 석탄매장량의 한계와 각종 사고 등 피해가 나타나면서 안전하지 않은 에너지원으로서 그 가치를 상실한지 오래됐다.

하지만, 저소득층이나 일부 농가 등에서는 연탄이 값싸고 열량이 좋기 때문에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연탄 한 장의 가격은 470~500원이다. 하루에 연탄 세 장이 필요하다는 가정 하에 하루 난방비는 1500원으로 다른 에너지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 등록된 강원연탄은 세종시의 상징인 조치원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30여년 가까이 운영 중에 있다. 초기에는 석탄 운반·활용이 철도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이로 인한 점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석탄이 에너지원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운반, 저탄, 제조, 운반 과정에서 분진으로 인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연탄공장 시설의 환경개선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세종시는 정부부처 예정지역의 3단계 정부부처 이전이 완료되고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면서 급격한 도시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조치원 역시 친환경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면서 시가지내 위치한 강원연탄의 이전과 환경개선 방안 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주민의 피해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공해는 물론 각종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세종시청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용역과 실사 등을 통해 여러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당장에 실천가능하고 개선가능한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의원은 강원연탄의 환경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올 연초에 강원연탄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관련 자료의 수집과 조사결과와 연구 및 인근 거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주에는 인근 연탄공장을 직접 현장방문하여 운영 실태와 주민갈등 사례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대전시 대덕구에 소재한 ○○연탄과 △△개발은 강원연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면적에 인근 지역에 주민이 생활하지 않는 최적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공장은 일일 15만장의 연탄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수도권의 수요까지 공급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갖췄으나 에너지원으로 연탄수요가 적은 요즘은 전면적인 가동은 하지 않고 있다. 저탄장은 석탄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방수포(갑비)로 덮여 있었고, 바람에 분진이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살수시설을 설치해 놓았다. 연탄 적재차량의 출입지역에는 세륜세차시설이 갖춰져 이동시 발생하는 분진을 예방하도록 되어 있었다.

충북 음성에 위치한 XX개발은 연탄제조업 외에 폐목을 활용한 펠릿연료(pellet)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었다. 저탄장의 방수포 설치, 세륜세차시설, 연탄 제조 등에서 다른 어느 업체보다도 차별화된 선진기술을 활용하고 있었다. 연탄 공장 주위로 특수제작된 방진망이 설치되어 있었다. 연탄 제조에 있어서도 자동화 시설을 갖춰 일정량 이상이 팔렛트(pallet)에 적재되면 이를 랩핑(wrapping)함으로써 분진방지와 운반의 편리를 극대화했다. 약 400여장이 하나의 팔렛트에 랩핑되면 이를 지게차로 운반하여 지붕이 있는 탑차에 실어 운반함으로써 안전성을 보장했다. 모든 면에서 배울 점이 많은 선진기업으로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었다.

업체 대표는 이런 시설을 활용하는 데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모든 연탄공장에 이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말도 있었다. 그러나,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지만 쾌적한 공장시설과 자동시스템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연탄을 회사에서 생산한다면 인근 주민의 불만도 해소되고 소비자 역시 동가홍상(同價紅裳)이라고 이런 제품을 구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조치원을 소재 강원연탄 공장의 이전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 회원은 충북과 대전에 소재한 연탄공장을 방문했다.

현장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내내 저탄장의 분진을 방지하기 위한 방수포(갑바)와 랩핑된 연탄을 지게차를 활용해 운반하는 모습들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이런 부분들을 강원연탄에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떠올랐다.

현재 강원연탄은 환경적인 면에서 전혀 개선되지 않아 그 피해를 조치원을 주민이 그대로 받고 있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개발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주민의 목소리는 외면받고 관련 기관들이 개인사업자임을 이유로 도외시하고 있다. 앞으로 연구모임은 연탄공장으로 인한 주민갈등을 해결한 사례 및 현장방문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이전대책이나 환경개선방안 등을 연 내에 마련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해결을 위해 온 몸으로 뛰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강원연탄의 해결을 위해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문제가 주요인이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 갈등만 불러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물론 관련기관과 주민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조금씩 양보하고 함께 열린 마음으로 함께 소통하고 공감해 나갈 때만이 실마리를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루 빨리 해결방안이 나와 주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조치원으로 거듭나길 기원해 본다.

< 저작권자 © 세종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대책연구모임 회의

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2015년 11월 16일 월요일 제12면 승인시간: 2015년 11월 15일 19시 05분

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서금택 대표의원)은 13일 의회 3층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의원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연구모임은 활동결과 보고서에 세륜시설 보강, 이송시설 밀폐, 야적장 및 작업장 주변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 방안과 함께 도시재개발 활성화계획에 포함해 강원연탄공장 부지를 주차장, 공원 박물관 등 주민편의시설 공간으로 조성토록 제안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 중부뉴스통신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추가

전국취재본부 및 기자모집
010-9424-4967
043)881-1400



중부뉴스통신
JUNGBU NEWS AGENCY

뉴스

전국

사람

오피니언

포토·영상

커뮤니티

보도자료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교육 | Biz & Tax | 2015장주대회 | 2016평창동계올림픽

전국
세종

세종시의회 제8차 강원연탄공장 연구모임 개최

세륜시설 보강, 이송시설 밀폐 등 환경개선방안 제시

[충북·세종=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 desk@jungbunews.com

+

승인 2015.11.15 19:14:25

G f v m n s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서금택 대표의원, 이하 연구모임)은 13일 오전 11시 의회 3층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가졌다.

종합뉴스
정치

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연구모임 제8차 회의 개최

이정복 | conq-lee@hanmail.net



승인 2015.11.15 14:26:45



클릭하면 큰 이미지로 볼수 있습니다.

[대전투데이 세종= 이정복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서금택 대표의원, 이하 연구모임)은 13일 오전 11시 의회 3층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서금택 대표의원의 인사를 시작으로 박영송·이태환 의원, 유진성·장교진 시민대표와 객점홍 일자리정책과장이 참여해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의원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강원연탄공장 관련 주민피해 및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이번 연구모임은 활동결과 보고서에 세륜시설 보강, 이송시설 밀폐, 야적장 및 작업장 주변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 방안과 함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 강원연탄공장 부지를 주차장, 공원 박물관 등 주민편의시설 공간으로 조성토록 제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모임 대표 서금택 의원은 “강원연탄공장은 청춘조치원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과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의원연구모임’에서는 활동결과 보고서를 오는 12월 중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홈 > 대전·세종 > 세종

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 제8차 회의 개최

세륜시설 보강, 이송시설 밀폐 등 환경개선 방안 제시

김공배 기자 | kkb1100@hanmail.net



승인 2015.11.15 15:10:50



[세종=충청일보 김공배기자] 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서금택 대표의원, 이하 연구모임)은 13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환경오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제8차 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서금택 대표의원의 인사를 시작으로 박영송, 이태환 의원과, 유진성·장교진 시민대표, 광점홍 세종시 일자리정책과장이 참여해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의원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강원연탄공장 관련 주민피해 및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활동결과 보고서에 세륜시설 보강, 이송시설 밀폐, 야적장 및 작업장 주변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 방안과 함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포함해 강원연탄공장 부지를 주차장, 공원 박물관 등 주민편의시설 공간으로 조성토록 제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서금택 대표의원은 "강원연탄공장은 청춘조치원프로젝트와 연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인근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과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한 뒤 "운영대책 의원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는 오는 12월 중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고를 달았습니다. 취소

이 광고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 ☐ 반복되는 광고
- ☐ 부적절한 광고
- ☐ 관련성이 없는 광고

Google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지난 13일 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이 지난 13일 의회 3층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마치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서금택 대표의원)은 지난 13일 의회 3층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박영송·이태환 의원, 유진성·장교진 시민대표와 곽점홍 일자리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의원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강원연탄공장 관련 주민피해 및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구모임은 활동결과 보고서에 세운시설 보강, 이송시설 밀폐, 야적장 및 작업장 주변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 방안과 함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 강원연탄공장 부지를 주차장, 공원 박물관 등 주민편의시설 공간으로 조성토록 제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연구모임 대표 서금택 의원은 "강원연탄공장은 청춘조치원프로젝트와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과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의원연구모임은 그 동안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오는 12월 중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뉴스

오피니언

연예

지역뉴스

포토뉴스

커뮤니티

독자투고

뉴스홈 > 뉴스 > 사회

등록날짜 2015년11월16일 10시24분

글자크기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 제8차 회의 세륜시설 보강, 이송시설 밀폐 등 환경개선방안 제시

[내외일보=세종] 박대훈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서금택 대표의원, 이하 연구모임)은 지난 13일 오전 11시 의회 3층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서금택 대표의원의 인사를 시작으로 박영송 이태환 의원, 유진성·장교진 시민대표와 박점홍 일자리정책과장이 참여해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의원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강원연탄공장 관련 주민피해 및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됐다.

이번 연구모임은 활동결과 보고서에 세륜시설 보강, 이송시설 밀폐, 야적장 및 작업장 주변 시설 보수 등 환경개선 방안과 함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포함해 강원연탄공장 부지를 주차장, 공원 박물관 등 주민편의시설 공간으로 조성토록 제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연구모임 대표 서금택 의원은“강원연탄공장은 청춘조치원프로젝트와 연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과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의원연구모임'에서는 활동결과 보고서를 오는 12월 중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 회 사 명 : 강원연탄 / 대표자 : 윤영수
-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으뜸길 177(원리 141-32)
- 생 산 량 : 연간 1,400만장(일, 4만장 / 9월부터 2월까지가 성수기임)
 - 생산시설 : 윤전기 4대, 저탄장면적 795㎡ / 저탄장 저탄능력 : 21,420톤
 - 공급지역 : 충남(천안,공주,예산), 충북(청주, 청원), 경기(안성, 안양)
- 제조업 등록 : '88. 3.7. 대기배출시설(5종),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강원연탄공장 건축물 현황」

주 소	지 번	지 목	건물층수	면적(㎡)	사용용도	비고
계				757.04		
조치원읍 원 리	141-31 141-32	대지	1층	507.52	공 장	
			1층	110	사무실	
			1층	29.52	창 고	
			2층	110	일반공장	

「강원연탄공장

토지현황」

연번	주 소	지 번	지목	면적(㎡)	비고
계	5필지			1,145	
1	조치원읍 원리	141-31	대	245	
2	〃	141-32	〃	479	
3	〃	141-33	〃	165	
4	〃	141-34	〃	208	
5	〃	141-49	철도용지	48	

「저탄장 임차현황」

토지소재지	지 목	면 적	임차기간	임대료(연간)
세 종 시 조치원읍 141-54	철도부지	3,000㎡	'15.1.1.~ '15.12.31.(1년)	44,765,340원 (부가세 제외)

(2-1) 위치 및 시설현황



(2-2) 강원연탄 토지이용 현황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연락처)
대 표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원	H·P)010-5425-1904 社)044-300-7030
간 사	이홍준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	H·P)010-9375-4496 社)044-300-7410
회 원	박영송	세종시의회 의원	H·P)010-3400-0141 社)044-300-7140
회 원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원	H·P)010-2421-0102 社)044-300-7171
회 원	유진성	세종시민	H·P)010-5450-2681
회 원	장교진	세종시민	H·P)010-4450-4972
회 원	곽점홍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정책과장	H·P)010-3117-0737 社)044-300-4010
회 원	김성수	세종특별자치시 청춘조치원과장	H·P)010-6810-7520 社)044-300-2710